

사드배치 반대 강연회 BC서 열려

김성희 성주사드배치반대위 공동회장, MD 전문가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사드의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강연회가 4월 10일 월요일 보스톤칼리지(BC)에서 개최된다.

보스톤칼리지 인권과국제정의센터가 주최하고 BC아시아학생회, BC 한인학생회, 한인유학생회, BC평화액션이 후원하는 이 강연회는 10일 저녁 7시 데블린홀 룸101(Devlin Hall Room 101)호에서 개최된다.

인권과국제정의센터의 브린턴 라이크스 교수와 램프 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회에 패널은 김성희 성주사드배치반대위 공동회장, 그리고 미국내 대표적인 MD전문가이자 MD비판론자인 시어도어 포스톨 MIT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내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현지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효용성과 MD의 효용성 등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는 고향전에서 패트리엇즈 요격 미사일이 40~70%의 요격율을 보였다는 것을 정면 반박하고 어쩌면 단 한차례도 성공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파란을 일으켰었다. 그의 주장을 뉴욕타임스와 보



보스톤칼리지 인권과국제정의센터가 주최하고 BC아시아학생회, BC 한인학생회, 한인유학생회, BC평화액션이 후원하는 이 강연회는 10일 저녁 7시 데블린홀 룸101(Devlin Hall Room 101)호에서 개최된다

스턴글로브 등이 보도했다. 이번 사드의 한국배치관련 국내 언론이 인터뷰한 대표적인 전문가도 포스톨 교수다. 한국의 사드배치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현지주민의 의견을 여과없이 듣고 싶은 한인들에게는 이날 강연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bostonkorean@hotmail.com

효도잔치 4월 11일 서울설령탕에서

노인회 3월 정기 임원회에서 사업계획 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노인회는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울스톤 소재 서울설령탕에서 효도잔치를 개최한다.

서울설령탕 주관으로 열리는 효도잔치에는 11일 당일 오전 10시 30분 북쪽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에게 제공하는 차량편이 북부보스톤에서 출발한다.

노인회는 3월 21일 열린 정기임원

회에서 효도잔치를 비롯한 올해 노인회 주요 활동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로렌스 소재 가든하우스에서 열린 임원회의에는 유영심, 권정자, 윤철호, 김용진, 황진희, 한순용, 김경순, 이평원, 이현경, 최영진씨가 참여했다.

노인회는 또 5월 17일 셋째 주요일 사랑방 모임 때 건강세미나를 개최기로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새생활센터 4월 15일 건강검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는 4월 15일 토요일 스톤햄 소재 새생활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내과와 치과 검진 그리고 건강상담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건강검진에서 내과는 진료후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하고 치과는 치아검사와 진료 예방상담 등을 진행한다. 진료는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날 건강검진에서 당뇨병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을 원하는 한인들은 아침을 굶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날 건강검진에서는 BMI와 체지방검사도 시행한다.

무료 진료 시간 : 4월 15일 오후 2시 ~ 4시

주최 및 무료 진료 안내 : 보스톤 새생활 센터/대표: 송연호(전화 : 317-374-4786)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이민국 H-1B 단속 강화 취업의 길 더 험난해져

▶▶1면에 이어서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무시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국은 취업 이민프로그램에 있어 사기를 방지해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미국내 H-1B청원 고용주와 근로현장을 실시할 범위를 좁혀 가장 의심이 가는 곳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국이 집중적으로 현장방문을 할 대상은 ▶비자를 신청한 업체를 각종 상업용 데이터로서 할 수 없는 곳 ▶H-1B 근로자가 미국 근로자들에 비해 비율이 높은 곳 ▶H-1B근로자가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이다.

미이민국은 현장실사 대상을 밝힘으로 인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을 취업비자를 통해 고용하는 업체들의 채용이 위축시킨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필요한 고용주들은 좀더 저렴한 외국 인력보다는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함에 따라 미국내 고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이민국이 H-1B비자를 단속하겠다는 발표는 고용주들의 외국인 고용 기피현상을 초래해 앞으로 H-1B로 취업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민 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이민국의 현장 실사에 대비 한인 업체들은 반드시 H-1B 신청서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직원의 연봉과 근무 직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민국은 현장실사 뿐만 아니라 H-1B의 남용이나 사기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신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를 수사하거나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이래 미 이민국은 무작위 현장실사를 벌여 왔다. 이민국은 현장 실사를 통해 사기나 남용이 의심되는 곳은 미 이민단속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해왔다.

또한 사기나 남용이 의심되는 업체에 한 신고는 노동부의 경우 WH-4양식, 이민단속국에는 HSI 팁 양식을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이민국은 이번 현장실사가 결코 불법 이민 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며 H-1B 근로자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등록률 18대 대선 대비 소폭 하락

▶▶1면에 이어서

스톤 지역이 비교적 신고·신청 율에 있어 선전한 것은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 등의 제도적 개선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재외선거 등록률은 전체 추정 예상 선거인수 197만여명의 15.1% 수준으로,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등재자수 22만2,389명에 비해 33.9%포인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15만 4,217명에 비해 93.1%포인트가 증가했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만 6,060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총영사관 1만4,194명,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1만3,697명 순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6만9,495명, 중국 4만3,977명, 일본 3만8,625명 등 3개 나라가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재외선거인

명부등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없이 4월9일에 확정한다.

중앙선관위는 4월5일부터 7일까지 선거연수원에서 재외공관의 선거 담당 영사 등 22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재외투표소 설치방법, 재외투표 관리요령,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실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스톤에서는 오진관 영사가 이 실무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재외유권자의 소중한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총영사관은 보스톤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임명하고 선거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2명더 채용해 재외유권자 등록과 재외선거를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철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 Um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성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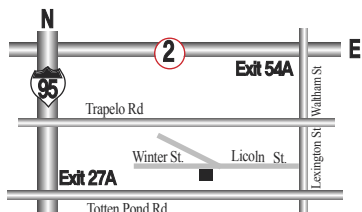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JULY 10 - JULY 28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번역 통해 한국문학 세계에 소개하는 사이트 Koreanlit.com

전승희, 고유진 번역가와 유희주 시인에게 듣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 영문판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데 이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쓴 소설 '소년이 온다(Human Acts)' 영문판이 미국 서점에 진열되는 등 한국문학이 세계의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때, 매사추세츠 주에서 설립된 Koreanlit.com도 한국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시인들의 시를 속속 번역해 발표하고 있다. Koreanlit.com은 [매사추세츠민간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한국 현대문학을 세계로"에 뜻있는 번역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 문학 번역 웹사이트다.

현지 전문 번역인, 영문학 교수, 치과의사,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해 작가와 교류하며 번역해 놓은 이 작품들이 훗날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Koreanlit.com의 설립을 주도한 유희주 시인과 자원 봉사 번역을 맡은 전승희 씨(전문 번역인, 잡지 아시아 편집위원), 그리고 번역 감수를 맡은 고유진 씨(웰슬리 대학 교수)와 인터뷰를 나눴다.

이 일에 동참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나?

전승희: 해외에 한국문학을 균형있게 소개하는 이 일에 기여하고 싶었다.

고유진: 한국문학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었다.

지금까지 Koreanlit에서 번역한 작품을 알려달라.

유희주: 장석주, 이재무, 한해영, 이산하, 권순자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했다. 그리고 이호준, 오인태, 김응교 시인의 산문, 이기형 시인의 시 10편이 번역 진행중이고, 그림을 그리는 시인으로는 김주대 시인의 그림을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김혜주, 유수례 화가의 그림과 글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한국문학 번역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시도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전승희: 문학의 기능 중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바람직한 비전을 사람들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간 중심의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문학의 근본적인 기능을 구체적인 아젠다가 있는 국가보다 잘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본다. 이런 뜻에 동참하는 개인이나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튼튼하게 꾸려갈 수 있다면 좋겠다.

고유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번역인들은 모



한국문학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Koreanlit.com의 설립자 유희주 시인(좌)과 전승희 번역가(가운데), 고유진 교수(우)가 한 자리에 모여 한국문학을 번역해 세계에 알리는 Koreanlit.com의 현주소를 논의했다

두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조직력이 부족하다. 이 일을 총괄 지휘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Koreanlit의 번역가들이 한국 번역가 협회, 문학번역원의 번역가와 어떤 점에서 구별된다고 보나?

유희주: 한국에 있는 번역가도 모두 훌륭한 분이겠지만 우리는 아마추어와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 미국인들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번역이 정적인 번역이라면 Koreanlit은 동적인 번역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마추어들이 번역을 시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

한강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는 등 한국문학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작품들이 영어권, 유럽권, 중국어권 등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Koreanlit.com이 번역한 작품들을 세계에 알리려면 웹사이트 외에 어떤 일을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나?

고유진: 첫번째는 홍보이 >>5면으로 계속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FREE GIFT
홍삼정 30g
천녹삼 30g
무료선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민남
\$420 (180g X 2병) \$70 상당 선물

용솟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기력회복 ✓항암효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진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당뇨 합병증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보주후 다음날 관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4면에 이어서

고, 두번째는 영어로 하는 학문적인 연구를 확대 (expand)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링크를 참조 하 길 바 랐 다 : <http://korea.fas.harvard.edu/event/tbd>. 몇몇 미국 내 대학에 있는 한국학 연구소 같은 기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승희 씨는 이재무 시인의 작품을 번역하기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승희: 이재무 시인은 현대적인 삶 속에서도 공동체적인 감수성, 그리고 한국 고유의 말이나 문화에 밀착한 감수성을 가진 시인이다. 평소 즐겨 읽던 분이요 높이 평가받는 분이지만 그동안 해외에 활발하게 소개가 안 된 분이려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번역과 원작가의 의도가 빗나갈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보나?

전승희: 발터 벤야민이 말했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원작도 원작이라기보다 어떤 아이디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번역도 원래의 이 아이디어로서 존재하는 원작에 충실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원작자와 상의해서 가능하면 그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유진 씨, 번역을 감수하면서 한국문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

고유진: 역시 한국 문학 번역한다는게 어려운 작업이란 것을 새삼 느꼈다. 한국시의 독특성을 다시 실감하게 됐는데, 어감이나 정서 등이 충분히 전달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번역가의 창작성은 번역을 통해 빛을 발한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좋겠다.

<http://koreanlit.com/whats-lost-and-found-in-translation-korean-poetry-and-the-case-of-ko-un/?lang=en>

한강 작가의 해외 조명은 작품성과 완성도 높은 번역, 현지 마케팅 등에 힘입었다는 분석이다. 완성도 높은 번역 작품이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그 점을 위해 Koreanlit.com 이 번역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유진: 그런 상황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영어가 모국어인 분들 또는 영어에

급만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세운 다음 계획들을 위한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재정적인 면 외에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나?

유희주: 이제 기본적인 것은 갖추었고 여기서 진일보 하려면 인적재원이야. 하지만 인적재원도 결국엔 재정적 문제에 봉착한다.

이 일이 한국 문학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하나?



.Koreanlit.com은 [매사추세츠민간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한국 현대문학을 세계로" 에 뜻있는 번역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 문학 번역 웹사이트다

능숙하신 분들이 한국 문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유희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번역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모두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조

유희주: 한국에서 번역되는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이미 많이 상업화된 작품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한국 문단에서 정치적, 사회적 성향을 띄었다는 이유로 묻힐 수 있는 작품도 소개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우선 문학적으로 승화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어떤 작품들은 다소 정치 이념적이거나 (부패한 권력)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는데, 어찌보면 민감할 수 있는 이 작품들을 세계 공용언어로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유희주: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워낙 민감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난 한국이 고향인 미국인이니까. 전승희 씨의 말처럼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에 대한 정치적 입장도 정리를 해야 했고, 미국에 대한 정치적 입장도 정리를 해야 했다. 그래야 소신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마음속의 결정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외교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100년 부패 정권과 맺은 미국의 외교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국 정치의 적폐청산이 먼저이다. 그래야 부패 정부와 외교관계가 있었던 일본과 미국을 향해 정당한 관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역사가 바로 잡혀가고 있어서 희망이 보인다. 이런 시기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문학을 통해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기타 자유로운 생각이 있다면 말해 달라.

유희주: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젝트가 스스로 진화를 해서 아주 훌륭해 졌다고 생각 한다. 앞으로도 관계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2세대들 글짓기 및 말하기 대회 개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주최
4월 29일 북부보스턴 한국학교에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의 여러 한국학교 재학생을 비롯한 꿈나무들이 참여하는 글짓기 및 말하기 대회가 4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반까지 앤도버 소재 북부보스턴 한국학교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에서 개최된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는 4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반까지 2017년도 글짓기 대회 및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2세대들의 한글에 대한 애정을 고양시키고 한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대회는 해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받으며 뜻깊은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글짓기 대회는 이 지역 Pre-Kinder 이상 12학년까지의 한국학교 재학생으로 한국에서 정규교육을 4년 이상 받지 않은 학생이면 참가가 가능하며, 신청

은 4월 18일 까지 각 학교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학교 재학생이 아니라도 자격조건을 갖춘 학생은 개인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협의회 회원교 학생일 경우 \$10이며, 비회원교 학생은 \$20이다.

시상은 각 학년별로 심사하여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며, 9학년 이상 대상 중 최고 득점자에게는 전제 대상을 수여하고 각 학년별 대상에게는 보스톤 지역 후원단체의 단체장상으로 시상한다.

협의회는 심사위원의 채점결과 총점 60점 미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90점 미만은 대상 수상에서 제외한다는 심사기준을 재확인했다. 참가 자격을 위배한 학생은 수상이 취소된다.

같은 날, 함께 열리는 나의 꿈 말하기 대회는 뉴잉글랜드 회원교에 재학하는 5~12학년 학생으로 현 거주지에서 3

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1년 이상 받지 않은 학생만 참가할 수 있다.

나의 꿈 말하기대회 대상 수상자는 영상 결선을 통해서 최종 6명이 선발되어 여름에 있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참가자에게는 참가비용으로 협의회에서 \$500 을 지원한다고 한다.

뉴잉글랜드 협의회는 이번 행사에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후원금은 박지애총무 (Alicia Fields, 38 Deerhaven Drive, Nashua, NH 03064 payable to NAKS-NE)로 보내면 된다.

이번 행사에 관한 문의는 한순용회장 (soonyhan03@gmail.com), 김현주 부회장 (hkimpw@yahoo.com) 또는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홈페이지 (www.naks-ne.org)를 참조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는 6개교 36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수상했다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리본 달기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보스톤세사모)은 4월 15일 오전 10시 벨링톤 소재 Hmart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추모하며 보스톤 노란리본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주최측은 이날 오전에도 상관없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월호는 3년전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 제주도로 향해하는 도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인해 30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중 일부의 유해는 아직도 수습하지 못했다.

세월호는 선체 인양에 성공, 목포

세월호를 잊지 마세요
REMEMBER
2014.04.16

신항에 반 잠수함 선으로 옮겨져 조만간 육지로 올릴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15일 봄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는 4월 15일 토요일 뉴햄프셔 알바니 소재 캐논 마운틴 프랭코니아 노치지역 (MT. CANNON ; FRANCONIA NOTCH/4100 ft)으로 정기산행을 나간다.

이번 산행은 론섬 레이크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데 왕복 산행 거리는 5.8마일이며 산행시간은 약 4.5시간이다. 난이도는 3.5로 보통이지만 부분적으로 바위가 있고 약간 경사가 큰곳이 있다.

겨울산행이만큼 준비물은 트레킹 폴스, 아이젠(Microspikes 또는 Crampons)이 필수이다. 이외에도 배낭, 등산화착용, 방한복, 방풍의, 장갑, 털모자, 고글, 스틱, 식수, 간편한 중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집결지는 울스턴 공영주차장(오

전 6시 30분)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7시 15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이날 시간 계획은 9시 30분 트레일입구에 도착해 9시 45분에 산행을 시작한다. 12시 30분 정상에 도착해 중식을 하고 1시에 하산을 시작한다. 오후 3시 하산을 완료한 후 오후 5시에 샬럼 주차장에 도착한다는 계획이다.

산행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A,B,C중 원하시는 조와, 집결지 선택(Allston or Exit 2) 차량운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연락 전화를 남겨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978-569-3256(김상호)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텡스 대학교 작곡 발표 및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

〈뮤직 올드 앤 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3월 말 폭설로 인해 연기되었던 텡스 대학교의 〈뮤직 올드 앤 뉴(Music Old and New)〉 콘서트가 오는 4월 20일(목) 오후 8시 텡스대학교 그라노프 뮤직센터에서 열린다.

1부 순서에서는 작곡가 이은영 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 8명이 가야금과 서양 악기를 위해 새로 창작한 곡들이 연주되며, 2부에서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의 후원으로 거문고 및 피리 산조, 가야금 병창, 아리랑 연곡 등의 음악과 탈춤, 살풀이, 진도 북춤 등의 무용이 공연된다.

참여하는 연주자들은 2015년 뉴욕 세계 한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가야금 명인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송은, 뉴저지에서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을 운영하는 무용가 강은주 원장을 비롯하여 2010년 연정국악 경연대회 및 2010년 동아 콩쿠르에서 1등을 수상한 거문고 주자 박민지씨, 인간문화재 안숙선 선생에게 사사한 가야금 연주자이자 소리꾼인 오정희씨이다.

이은영 교수는 “이 음악회가 텡스 커뮤니티에 한국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첫 번째 기회일 뿐 아니라 텡스 대학교 학생들이 처음으로 한국 악기를 위

해 쓴 작품들이 발표되는 뜻 깊은 음악회” 라고 이야기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 음악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 악기를 위한 곡을 쓰게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작곡가 이은영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와 맨해튼 음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만의 창-후웨이 슈 국제 작곡 콩쿠르를 비롯한 많은 작곡 콩쿠르에 입상하였으며 맥도웰 콜로니, 버지니아 창작 아트센터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펠로우십을 지원받았다.

기악곡들과 컴퓨터 음악, 멀티미디어 작품과 영화 음악이 미국, 한국, 브라질,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 연주되고 방송된 바 있으며, 2014년부터 보스톤 컨서버토리에서 작곡 및 작곡 세미나를 가르치고 있다.

이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정보는 kcsboston.org에서 볼 수 있다.

뮤직 올드 앤 뉴(Music Old and New) 콘서트
 일시: 2017년 4월 20일(목) 저녁 8시
 장소: Tufts University Granoff Music Center (20 Talbot Avenue, Medford, MA)
 입장료: 무료
 후원: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 Soloists Ensemble의 첫번째 콘서트 시리즈가 지난 달 30일 저녁 서거스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솔리스트 앙상블 3월 봄 연주회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솔리스트로서 미국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각광 받고 있는 연주자들이 모인 Boston Soloists Ensemble의 첫번째 콘서트 시리즈가 지난 달 30일 저녁 서거스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에는 두번째 카네기홀 솔리스트들을 성공적으로 마친 보스톤 솔리스트 앙상블의 리더인 피아니스트 김배규와 스톤 힐 대학에서 교수로 그리고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권소영 그리고 여러 오페라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고있는 소프라노 박지은의 연주로 계절에 맞게 베토벤의 ‘Spring Sonata’ 슈베르트의 가곡 ‘봄의 찬가’, ‘봄의 화신’ 등 따스함을 부르는 사랑스런 곡들로 꾸며졌다.

이들의 첫 무대를 장식한 베토벤의 바이올린소나타 No.5 in F Major, Op. 24는 ‘봄’ 또는 ‘스프링 소나타’로 불리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곡으로, 쌓여있는 눈들이 녹아가며 모두가 기다리는 봄이 문턱에 와 있음을 사뭇 느끼게 해주었다.

바이올리니스트 권소영과 피아니스트 김배규는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품집 ‘그리운 고향의 추억 (Souvenir d' un lieu cher)’ 중 제 3번 곡인 Melodie로 이어갔는데, 감미로운 선율과 편안한 느낌을 안겨주는 이 곡에서 듣는 이들은 고향의 따스함,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무대였다.

2부에서는 피아노와 소프라노의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가 음악 하나하나를 표현해 나갔고,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박지은의 뛰어난 해석으로 독일 가곡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피아니스트와 성악가 사이의 밸런스가 피아노와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효과를 내었다.

슈베르트와 슈만의 곡들에 이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프랑스 가곡의 서정적인 면을 이 둘은 더욱 탁월하게 드러냈다. 프랑스에 서도 활동했던 피아니스트 김배규는 물결치듯이 부드럽게 연주되는 피아노의 선율로 프랑스 낭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곡인 생상의 “Violons dans le soir”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로 시작되면서 소프라노 그리고 바이올린이 하나의 곁을 쌓듯 이야기를 더하여 웅장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다. 특히 클라이막스에서는 세명의 솔로리스트가 하나가 되어 웅장함을 심어주었다.

리더 김배규 씨는 “클래식음악의 정통성을 고수하면서도 여러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보스톤 솔리스트 앙상블은 솔리스트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연주자들이 모인만큼 연주자의 개성을 살려 매 연주마다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폭넓은 레파토리와 서로 간의 화합된 모습으로 지속적인 정기연주와 초청연주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거문고 박민지

가야금 병창 오정희

가야금 신송은

무용가 강은주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어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아니메 보스톤, 왜 미국팬들은 열광하나

다양한 참가자들 아니메 보스톤에 열광하는 이유 밝혀
아니메 통해 일본 문화 수출, 한류 상품은 팔 것이 없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일본 애니메이션(아니메) 축제인 '아니메 보스톤 2017' 이 올해도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 어냈다. 보스톤 뿐만 아니라 멀게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에서 모인 팬들은 아니메 보스톤 축제를 만끽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 하인즈 컨벤션 센터와 웨라톤 호텔에서 진행된 올해 이벤트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코스튬과 아니메 주제가를 비롯한 각종 경연 대회, 애니메이션 상영, 잡화 및 피규어 판매, 콘서트 등 총 500여개의 이벤트로 구성되었다.

올해 이벤트에 대한 공식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벤트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행사에는 각각 약 2만 7천여 명이 입장한 가운데 작년 행사에서는 조기 등록자 2만여 명 돌파, 총 프로그램 규모 400시간 최초 초과(영화 상영분 제외) 등의 여러 가지의 최초 기록이 쏟아지기도 했다.

아니메 보스톤에 이처럼 미국 팬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미국 사회의 하나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그저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



조지아 주에서 아니메 관련 상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미스터 박 씨는 "한국 물건을 팔고 싶어도 팔만한 것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했다. 이날 아니메 보스톤에 참가한 각 분야의 사람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참가자들의 말말말>

- 아니메는 제 2의 삶이에요 : 코스튬 플레이어 유미 양

올해로 두 번째 아니메 보스톤에 참가한 유미 양은 "아니메 보스톤으로 인해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유미 양은 집과 학교에서는 여느 또래와 같은 평범한 학생이다. 하지만 유미 양은 코스튬 플레이를 할 때만큼은 인기 아이돌이 부럽지 않다.

유미 양은 올해 행사를 위해 일본의 가상 아이돌 프로젝트인 '러브 라이브'의 캐릭터 '미나미 코토리'의 의상 3벌을 준비했다. "특별히 학교에서 인기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라고 말할 유미 양이었지만, 행사장을 걸을 때마다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는 학업 관계로 1년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2천 명이 넘는 팬을 거느리고 있다.

실제 자신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고 말한 유미 양은 코스튬 플레이를 하면서 덕분에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에서 유미 양이 소속된 코스튬 동호회 멤버들은 러브 라이브 그룹의 멤버 전체를 완성시켰다.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틈틈이 연락하면서 코스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서로 물건 교환도 하며 친목을 다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라 그런지 학교 친구들보다 더 친하고 유대감도 느껴져요"

유미 양은 보스톤에서 차로 1시간 걸리는 외곽지역에 살고 있고, 아직 고등학생이라 보스톤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어렵게 온 아니메 보스톤이 굉장히 즐거워서 비슷한 이벤트에 더 많이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니메를 접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사진작가로 참여한 그레그 씨는 미국인들이 일본 문화에 더 친숙한 이유가 어려서부터 아니메를 통해 접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생겼다. 언젠가 돈과 시간의 여유가 되면 아니메 팬들의 성지라 불리는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에 있는 메이드 카페에 가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그의 다음 이벤트 참가는 이번 달 말 보스톤 커먼에서 열리는 "일본 페스티벌"이다.

- 코스튬 플레이어는 최고의 모델이죠 : 사진작가 그레그 씨

사진작가 그레그 씨는 올해 아니메 보스톤에 카메라 스태프로 참여했다. 코스튬 경연대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연신 찍고 있던 그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끊임없는 손동작과 추임새로 긴장하고 있는 모델들을 격려했다.

20여 년간 사진작가의 일을 해 온 그레그 씨는 코스튬 플레이어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코스튬 플레이어는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중엔 전문 모델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일반인이에요. 하지만 열정과 창의성은 프로 못지않죠. 그들은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레그 씨는 많은 미국인들이 일본에 친숙함을 느끼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문화보다 열광하

는 이유를 아니메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같은 세대는 뽀빠이나 디즈니를 보고 자랐죠. 요즘 세대는 달라요. 포켓몬스터나 세일러 문, 원피스처럼 일본 문화를 아니메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잖아요. 거부감이 없죠.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환상이 일본 문화에 대한 친숙함과 동경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는 한류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에서의 한류 팬들은 일본 아니메를 통해 아시아 문화에 거부감이 없어진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일본 문화를 검색하다가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문화지만, 미국인들은 그 차이를 느끼기 힘들어요. 한국이 자신만의 문화와 콘텐츠를 만들어서 성장시키려면 일본 아니메 산업처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요"

- 한류 상품이요?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 아니메 상품판매업자 미스터 박

올해 아니메 시장에 달려로서 처음 참가한 미스터 박은 한류 관련 상품을 ▶▶9면으로 계속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아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직업입니다.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 2월 28일)

"성업 중인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5 Stars Reviews
> 저렴한 Tuition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artwithcatbyun.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연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초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과 예술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트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ell: 310.985.3737(미술 수업 상담)

(강사 :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76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cna76@gmail.com

781.729.8868

현금 대출

-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 신용조회 불필요
- 24시간내 승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8면에 이어서

팔고 싶어도 팔 물건이 없다며 불평했다. 조지아 주에서 온오프라인 애니메 상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미스터 박은 한류 산업에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여 년간 애니메 관련 상품을 팔아 온 박 씨는 일본 애니메 관련 상품과 한류 관련 상품의 양과 질이 천지차이라고 말했다. “일본 상품을 구하려고 주로 도쿄의 아키하바라에 가요. 애니메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니 만큼 없는 게 없죠. 상품들도 일본생산품이거나 기획사가 직접 관리하는 물건들이라 상품의 질이 상당히요. 한국물건은요,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 오려고 해도 종류도 별로 없을 뿐더러 대부분이 중국이나 태국에서 만들어진 저질 카피 제품이에요. 아무리 한류가 인기라도 판매자도 팔고 싶지 않을 정도인데 사람들이 사겠어요? 그나마 들어오는 질 좋은 한류 상품은 다 일본 기획사들이 만든거예요.”

박 씨는 이처럼 일본과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차이에 대해 호응과 지원의 차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 일본 관련 이벤트가 열리면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 친구 손 붙잡고 어떻게든 일본을 알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대로 한국 행사에는 외국 사람은커녕 한국 사람도 잘 없어요. 자기나라 사람들도 관심 없는데 외국인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겠어요? 행사가 열리면 정부 지원이나 스폰서도 와야 진행이 되는데 한국 행사는 그런 것도 잘 없어요. 자동차 한 대보다 이런 문화 상품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는데 안타깝죠.”

그러면서 박 씨는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말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하지만 팔 물건이 없어요.”

itshunne@bostonkorea.com

4번째를 맞는 한류 홍보단 믹스의 miXx it Up!

다수의 비(非)한국인으로 구성, K-Pop 20여곡 공연 예정
각종 아시아 문화 행사 참가하며 한국 문화 홍보에 앞장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각종 행사를 통해 보스톤에서 한류 홍보 도우미를 자처했던 믹스(miXx: 보스톤 대학 한류 커버댄스 동아리)가 16일(일) 오후 5시, 500여석 규모의 BU의 Tsai 퍼포먼스 센터에서 정기공연을 갖는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공연을 가져온 믹스는 올해로 4번째 상반기 정기 공연을 맞이한다. 이번 공연은 ‘엑소(EXO)’의 댄싱 킹, ‘방탄소년단’의 Not Today, ‘시스타’의 I like that을 비롯해 2시간여 동안 약 20여개의 곡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위해 85명의 믹스 멤버들이 지난 반년동안 구슬땀을 흘렸다.

2013년에 만들어진 믹스는 5년여 동안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 지역 명물로 거듭났다. 작년에 처음으로 유튜브와 중국의 비리비리(Bilibili)를 통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믹스는 최근에는 각종 보스톤 지역의 아시아 문화 행사와 학생 이벤트에 게스트로 참가하며 보스톤에서 한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인이 거의 없음에도 한국인 보다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더 앞장서온 온 믹스를 높이 평가한 보스톤 한국 총영사관은 지난 학기부터 믹스의 공연과 영상 촬영에 대한 후원을 하고 있다.

올해 믹스의 회장인 쿤 씨는 “올해는 어느때보다 지역사회에 한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며 “이번 무대는 그동안 보여드렸던 우리의 열정을 집대성한 좋은 무대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학기부터 믹스를 후원해 주신 보스톤 한국 영사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대중문화를 홍보하는 사명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공연문의〉

믹스 공식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U-miXxKPopDance>

이벤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vents/1761863544127478/>

〈공연일시〉

2017년 4월 16일 오후 5시 ~ 7시

〈공연장소〉

- BU Tsai Performance Center (685 Commonwealth Ave, Boston, Massachusetts 02215)

〈입장권 구매〉

온라인 구매:

<http://mixxitup2017.eventbrite.com>

가격: BU생 \$8, 일반 \$10

당일 구매 (at Door): BU생 \$10, 일반 \$12

itshunne@bostonkorea.com



보스톤에서 한류 홍보 도우미를 자처해 온 믹스(BU's miXx K-pop Cover Dance Crew)가 4월 16일 5시 BU Tsai 퍼포먼스 홀에서 4번째 정기 공연을 갖는다



믹스 멤버들이 4월 8일 믹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새로운 댄스 커버 뮤직비디오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오늘 반찬

Today Banchan

메뉴(1회 \$100)
4/12(수), 4/15(토)

- 해물찌개(32oz 2통)
- 닭곰탕(32oz 2통)
- 돈까스+양배추샐러드(24oz)
- 고등어구이(24oz)
- 무말랭이(16oz)
- 숙주나물(16oz)
- 알타리김치(16oz)

100% 보장
신선한 재료
NO MSG
배달 당일 요리
(김치, 젓갈 등 저장음식 제외)

주문
배달 전일 저녁 8시까지 주문 접수
배송은 수, 토요일 밤 6-9시 사이
이메일: todaybanchan@gmail.com

(알려지가 있으신 분은 미리 알려주세요)

TEL: 857.998.9172
Kakao: todaybanchan

“당신의 환한 미소가
바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우버, 리프트 자원자수 천명 신원 조회 걸려

2016 제정된 법에 따라 신원 조사 의무 전체 지원자의 10% 이상이 통과 못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우버와 리프트 같은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모바일 서비스) 회사에서 운전하기 위해 지원한 사람들 중 수천 명이 신원 조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에 따르면 지원자 중 10% 이상이 신원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작년에 라이드 헤일링 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새로운 법에 따라 라이드 헤일링 회사의 운전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5일 라이드 헤일링 회사 지원 운전자의 신원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었다. 신원 조사에서 불합격된 주된 이유는 지원자가 운전 면허 정지 기간이거나, 운전 면허를 최근 3년 이내에 발급 받았거나, 심각한 운전 과실이 수 차례 적발된 경우였다.

우버와 리프트에 동시에 지원한 운전자들도 있었는데 6만 2천명 이상의

지원자가 신원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약 8,200명의 지원자는 신원 조사에서 탈락했다. 300명 이상의 지원자가 흉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51명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었다.

우버는 주 정부의 발표 이후 신원 조사 과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버는 성명에서 “기간조차 명시되지 않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신원 조회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 당했다”며 “마땅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기

회가 있다”고 밝혔다.

라이드 헤일링 규제 법안에 서명한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는 우버와 리프트가 동의한 연방 표준에 따라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은 우리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다”라고 말했다.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지원자의 신원 조사는 크게 2번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회사에서 지원자의 범죄 기록, 운전 기록, 성범죄 기록을 조회한다. 회사의 신원 조사를 통과한 사람은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원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 정부의 신원 조사 과정에는 평생 중범죄 기록, 심각한 운전 과실 기록, 성범죄 관련 기록 조회가 포함되어 있다.

jsi@bostonkorea.com



우버, 리프트 운전 지원자 중 8천명 이상이 신원 조회에서 탈락했다



버터를 바른 베이글을 주문했지만 버터가 아닌 다른 제품을 사용한 던킨 도너츠 매장이 소송을 당했다

던킨 도너츠, 버터 관련 소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우스터 지역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23개 던킨 도너츠 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터를 바른 제품을 주문했는데, 버터가 발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이유다.

잔 플라닉이 3일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버터를 바른 베이글을 주문했지만 “마가린이나 버터 대체용품”이 사용된 베이글을 받았다. 플라닉은 버터를 추가 주문하기 위해 25 센트를 지불했지만, 버터 대체용

품이 사용되었다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소장에 적혀 있다.

만약 플라닉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그레프톤, 레오민스터, 로웰, 밀버리, 슈루즈버리, 웨스트보로, 우스터 지역의 23개 던킨 매장에서 1,400명이 3개의 버터를 바른 머핀이나 베이글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라닉은 단체 소송을 대표한 인센티브로 500달러를 받게 된다.

던킨 도너츠는 소송이 접수된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매장 전체에 적용되는 버터 관련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Boston.com



마이클 리 모기지

Norwich Commercial Group, Inc. | NMLS #71655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전문 분야

통상 대출
정부론: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점보론
리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홈임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S#146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9534498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89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innie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매사추세츠 대법원 "지역 경찰 불체자구금 케이스 심사"

보스톤글로브 판사들 로컬경찰 구금 불가 쪽으로 기운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미국내 최초로 지역 경찰의 불법이민자 감금 가능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보스톤글로브는 4월 4일 대법원 판사들이 지역 경찰들이 단지 이민법 위반만으로는 불법이민자들을 감금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민자 단속 여부에 대한 심리에서 대법원 제럴딘 하인즈 판사는 "현재 주법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방정부가 매사추세츠 주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연방정부를 대변하는 검사에게 물었다. 조수아 프레스 연방검사는 지역경찰이 본연적으로 연방정부 이민법을 단속할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연방 이민단속국은 지금까지 때때로 지역 경찰들에게 불법이민자들을 48시간동안 단속해달라는 감금요구서를 발행해왔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민 단속 강화를 천명하면서 이 같은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로지 이민법 위반만으로도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감금요구서가 아니면 결코 감금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지역 경찰이 감금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권 위반과 주정부의 주권 행사에 대한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인즈 판사는 "매사추세츠 주법

중에 어떤 것이 이것을 허용하나"고 연방 법무부 검사인 조수아 프레스에게 묻고선 "연방 법무부의 논박에서는 이를 증빙할만한 아무런 법조항도 찾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프레스 연방 검사는 판사들의 질문에 "매사추세츠 주법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지역경찰이 연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적 권한을 막고 있는 어떠한 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이민법 위반만으로 지역 경찰이 감금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미국내 주 대법원중 처음이다.

모라 힐리 주 법무장관은 주정부를 대신해 지역 경찰이 이민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민자를 감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법 위반 외 다른 법을 위

반해 위해를 가하는 이민자의 경우 지역 경찰은 연방정부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검사 프레스는 이날 변론에서 연방정부가 지역 경찰들이 이민자들을 감금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각 타운이나 시는 원하는 경우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예외 차원에서 해왔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방법이 구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없이 구금하는 것이 정당한 법집행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사추세츠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암묵적인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사이자 이민자로서 구금을 경험했던 엠마 윈저 변호사는 "매사추세츠 법은 어떠한 암묵적인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시청 앞에서 지역 경찰의 불법이민자 감금을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맞서 '우리는 계속 저항할 것'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하버드생 反트럼프 '덤블도어의 군대' 만든다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J.K.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호그와트 학생들을 억압하는 돌로레스 엄브릿지에 맞서 해리 포터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결성한 비밀단체 '덤블도어의 군대'. 이 가상의 조직이 미국에서 현실화됐다. 주인공은 하버드생이다.

4일 정치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생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진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레지스탕스 스쿨'(Resistance School)을 발족했다.

11명의 창립자들은 스스로를 하버드판 '덤블도어의 군대'로 자처했다.

레지스탕스 스쿨은 4주짜리 온라인 학습과정으로 연방·주·지방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수업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5일부터 매

주 진행되는 강의는 △정치적 주장에서 우리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 △공동체를 동원·조직하는 법 △행동능력을 조직·구축하는 법 △장기적 저항을 유지하는 법 등을 주제로 저명 강사를 초청해 이뤄진다. 강의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들은 레지스탕스 스쿨의 창립 목표를 "구체적인 학습, 지역사회 참여, 미래지향적 행동을 통해 저항의 불씨를 살려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反)트럼프 저항 움직임이 비단 거리에서의 시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공간인 학교로 스며든 것.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이들은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새 행정부에서 진보적 가치와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모임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yeoulim@news1.kr



MR. SUSHI ARLINGTON



781.643.4175

693 MASS AVE. ARLINGTON, MA 02476

BUSINESS H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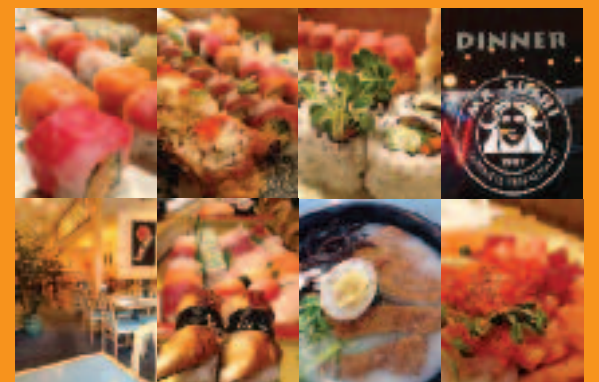
Monday	11:30AM - 10:00PM
Tuesday	11:30AM - 10:00PM
Wednesday	11:30AM - 10:00PM
Thursday	11:30AM - 10:00PM
Friday	11:30AM - 10:00PM
Saturday	11:30AM - 10:00PM
Sunday	11:30AM - 09:30PM

SINCE 1987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및 한식 지금 경험하세요!

Catering 주문 환영

TD Garden (Celtics & Bruins Game VIP 일식 담당)
The Colonnade Boston Hotel,
Winchester Country Club 일식 출장 연회 다수 경험



미국의 '北에 모든 선택지 검토' 대체 무슨 뜻일까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all options are on the table)"는 문장을 외신에서 거의 매일 보게 된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전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이 표현을 썼다. 의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CNN은 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17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한 방한 기자회견에서, 니키 헤일리 주유엔(UN) 미국 대사도 지난달 초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뒤 미국의 대북 대응법을 설명하며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이 표현을 썼다.

북한 문제에서만 이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를 겨냥해 지난 5일 이 말을 했다. 지난 2월 백악관의 한 관리도 중동 내에서 공격적인 활동을 보이는 이란을 경고하며 이 표현을 썼다.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은 다소 모호하지만 강한 함의를 담고 있다. 군사해법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은 한반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성명이나 최고위 인사 발언은 허투루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 마디 한 마디 의도와 의미가 담겨있다. 다만 메시지가 대체로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여러 의미로 수용되는지에선 차이가 있다.

일단 '쉽고 투명한 말'은 상대에게 보다 큰 신뢰감을 준다. 하지만 위험성도 따른다. 발언 이후 철저한 이행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상실한다. 반면, 모호한 말은 신뢰를 받긴 힘들지만 나중에 말의 뜻에 걸릴 위험성은 낮다.

미국 매체 '디 애틀랜틱'은 데프콘(DEFCON·전투준비태세) 수준에 따라 미 정부의 발언 수위를 비교했다. 참고로 '데프콘 5'는 안전한 상태를, '데프콘 1'은 전쟁 계획 시행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는 최고 준비태세를 의미한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전쟁발

발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데프콘 숫자가 높을수록 모호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사용됐다. '데프콘 1'에선 가장 투명하고 분명한 용어가 등장했다.

'디 애틀랜틱'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성명과 발언을 갖고 분석을 했다. 이 전 정부와 비교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과 성향이 훨씬 강하다. 소통 방식이 오바마 행정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고를 하고 있음은 분명해보인다. 훨씬 강도높은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점차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기보다는 현명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랄 뿐이다.

allday33@news1.kr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모습을 시찰하고 있다.(노동신문)

北에 할말없다"는 틸러슨 美 국무에 '비난 포화'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한이 5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이례적으로 짧은 성명을 놓고 미국 언론의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전략에 따른 것이라 진단도 있지만 대다수는 비난의 화살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겨눴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또다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혔다. 성명의 일부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AFP통신 기자 데이브 클락은 트위터에서 성명 전문을 올리며 "트윗에 적합하다"고 비아냥댔다. 또 "성명은 23개 단어로 돼 있는데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NN은 틸러슨 장관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외교에서 모호함은 위험한 것이다. 말은 중요하다. 오해는 국제적 사건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매체 CNBC는 국무부가 "3개 문장으로 된 통명스러운 성명을 내놓았다"면서 이를 놓고 "여러 정책 전문가들이 놀라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며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핵심 외교정책 참모인 로라 로젠버거의 트위터를 소개했다.

로젠버거는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썼다면 난 해고됐을 것이다. WTF(욕설)"라고 의견을 남겼다.

미국 매체 '더 워크'는 짧은 성명 작성의 의도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김정은이 갈망하는 관심을 주지 않길 원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는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할 일을 완전히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를 언급했다. '더 워크'는 "이것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뜻이라면, 틸러슨 장관은 쿠슈너 태그를 달고 '(국무장관은)바로 너다'라고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디 애틀랜틱'은 전일 미 국무장관은 "행정부의 외교 정책 해설자이자 외교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선임 고문"이라면서 "국가의 최고 외교관으로서 협상을 벌이고 미국 외교 정책에서 세세한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국무장관은 자신의 할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allday33@news1.kr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골프 레슨

US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용직 전통상 대여 (매일, 화일)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가씨께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침하게!

- 품격 있는 최일도 한수리
- 다양한 수제 소품들
- 일과로 여유로운 인문 강좌와 케이크
- 국내산 유기농산물과 장기, 궁기
- 황금고양이와 미니북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안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불법 다운로드 비디오들

합법적인 안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오바마케어' 지지율 더 높아져...

무당파 오바마케어 지지율 '경중' 강경-온건파간 '트럼프케어' 실랑이 여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정권이 만든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폐기를 두고 좌충우돌인 상황에서 오바마케어의 지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케어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55%로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40%의 응답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갤럽이 오바마케어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이며 처음으로 과반 지지율을 달성한 것이다.

특히 무당파층의 오바마케어 지지율이 경중 뛰어났다. 지난해 11월 오바마케어 존치를 원하는 무당파는 40%에 불과했으나 5개월만인 이번 조사에서 57%로 17%p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체 법안 일명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가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오바마케어의 지지가 꾸준히 높아진 셈이다.

트럼프케어는 공화당내에서도 반발이 많아 지난달 계획된 하원 표결은 치르지도 못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3일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과 회동해 합의에 나섰으나 이번엔 중도파가 반대하고 나서 트럼프케어를 둘러싼 당내 분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펜스 부통령은 각 주 정부가 필수 의료혜택(EHB) 의무 조항과 기존 병력을 근거로 가입 거부를 하지 못하게 만든 규정을 없앨 수 있도록 완화된 안을 프리덤 코커스에 지난 3일 제시했다. 프리덤 코커스는 임신 및 출산, 정신질환 등 10대 의료 항목 보장을 의무화한 EHB와 기존 병력 가입자 차별 금지 조항이 보험 비용을

높인다면서 트럼프케어에서 이 조항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덤 코커스는 펜스 부통령이 내놓은 합의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지만 공화당내 온건파가 여기에 반대했다. 레오나드 램스 하원의원(뉴저지)은 펜스 부통령이 제시한 안은 오바마케어가 도입되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한 공화당 소식통은 더힐과 인터뷰에서 "벌써부터 엄청난 표를 잃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고 했다.

yjw@news1.kr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골디락스 유가 70달러... 감산에도 올해 60달러 하회"

WSJ 글로벌 IB 14곳 설문...WTI 57불·브렌트 55불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전 통 원유 강국들의 생산 감축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평균 유가가 3년 연속 배럴당 60달러를 밑돌 것 이라는 전망을 지속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서부 텍사스원유(WTI)와 브렌트유가 올해 평균 57달러, 55달러를 기록 할 것이라고 전망해 이전 설문과 비교해 변함이 없었다. 이날 WTI 54.36달러, 브렌트유 51.15달러로 각각 체결됐다. 이번 설문은 14개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실시됐다.

지난해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이 감산에 전격 합의한 이후 유가는 20% 가까이 올랐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올 상반기로 만료되는 감산 합의가 연장될지에 쏠려 있다. 5월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 총회에서 감산 연장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WSJ이 설문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감산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마이클 휘트너 원유시장 리서치 본부장은 "OPEC이 그렇게 많은 감산으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미국 셰일의 생산이 예상 보다 훨씬 빨리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셰일의 부상은 장기적으로 OPEC의 시장 점유율을 제약

할 수 있지만 당장은 감산 효과가 유가로 실현됐다. 거의 3년 동안 시장에 과잉공급됐던 재고가 줄었다. 하지만 미국의 재고가 최근 사상 최대로 쌓이며 지난달 유가는 5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코메르츠뱅크 애널리스트들은 "감산 목표가 5월까지 달성될 것 같지 않다"며 "OPEC이 4분기까지 현재 수준의 생산을 유지해야 목표했던 재고 축소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 상승에 이미 미국 셰일 생산을 늘렸다. 1분기 미국에서 늘어난 원유 시추공수는 137개로 일 주일에 10.5개씩 생겨나 거의 6년 만에 가장 가파른 분기 상승세를 기록했다. 생산도 늘었다. ING뱅크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미국에서 늘어난 일평균 원유생산은 60만 배럴 넘는다. 현재까지 OPEC 감산분의 거의 35~40%에 해당한다.

바클레이즈는 최근 보고서에서 "OPEC 감산이 미국 원유섹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줘 5월 OPEC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 성장이 예상을 상회하면 OPEC이 이뤄낸 일을 되돌릴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바클레이즈는 올 12월 미국의 원유생산이 수십 년만에 최고를 기록해 1970년대 사상 최대에 근접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irimi99@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보스톤 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샵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 깨졌다...여론조사 문-안 양강 구도 뚜렷

다자 구도 오차범위 내 차이...양자 구도 역전도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원내 5당의 대통령 후보 확정 이후 탄핵 정국에서 이어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세론이 흔들리는 한편 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중심으로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중앙일보가 6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후보는 다자 대결 가정 아래 오차범위 내에서 안 후보보다 우세한 지지율을 보였다. 문 후보 38.4%, 안 후보 34.9%로 집계됐다. 확연히 양강구도다.

안 후보가 지지율 급등세에 힘입어 문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양자 대결에선 오히려 안 후보가 50.7%, 문 후보 42.7%로 안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YTN과 서울신문 공동 의뢰로 엠브레인이 4일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

사도 중앙일보 결과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엠브레인의 대선 후보 가상 6자 대결 조사의 경우 문 후보가 38.2%로 안 후보(33.2%)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양자 대결을 가정할 경우엔 안 후보 지지율이 높았다. 안 후보는 47.0%, 문 후보는 40.8%로 조사됐다.

중도·보수 후보가 안 후보로 단일화된다는 가정 아래 문·안·심상정 정의당 후보 3자 대결 시 안 후보가 43.7%로 문 후보(39.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지지받았다.

문재인 후보 독주체제에서 양강구도 바뀌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 혹은 '대세론 자체가 유효하지 않음'에 동의하면서도 후보 간 이합집산 등 대선 구도에 따라 지지율 추이가 바뀔 것이라

관측을 내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6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적어도 형식상으론 일단 (문재인) 대세론이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대세론은 일방적·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뺏기지 않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다만 "보수 유권자 표가 문 후보는 안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대선 당일까지 유지될지 아직 모르겠다"며 "안 후보 지지층이 상대방을 안 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대안이라면 그 표의 충성도나 결집도는 낮다고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대세론은 언제나 깨지게 돼 있다"며 "각당 내 경선이 끝난 만큼 또 새로운 구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의 움직임은 구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구도는 또 여론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예를 들어 안 후보에게 양자 구도나 다자 구도 속 표의

솔림 현상이 생긴다면 그게 또 대세론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상대로 했고 유(31.9%)·무선전화(68.1%) 면접 임의번호결기(RDD) 방식을 따랐다. 응답률은 29.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엠브레인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2명을 상대로 유(39.2%)·무선전화(60.8%) 임의번호결기(RDD) 설문지 이용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girin@news1.kr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 재편에 네거티브 공방 개막

안측, 文아들 특혜취업 및 盧사돈 음주사고 은폐의혹 공세 文측, 국민의당 '렌터카 떼기' 동원 및 조폭 연루 의혹 공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간 양강 구도로 대선구도가 재편됨에 따라 양측이 '검증'을 명분으로 한 네거티브 전(戰)에도 불이 붙고 있다.

문 후보는 아들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과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과거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 공세에 직면해 있다.

문 후보의 노 전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은 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2003년 당시 피해자에게 사건 무마를 종용했고, 해당 사건이 지난 2006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뒤늦게 사건 처리에 나섰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2003년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노 전 대통령) 사돈의 사고라 하더라도 그냥 시골에서 일어난,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이고, 당사자간 합의로 끝났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003년 발생한 노 대통령 사돈의 음주행소니 사고를 당시 이호철 청와대 민정1비서관이 알았다는데,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 후보는 모르쇠로 버티지 말고 빨리 진실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직 대통령의 사돈이 사고를 냈다면 즉각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사항이다.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건 거짓이고 변명이지 해명이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 후보는 또 아들 준용씨의 특혜 취업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문 후보는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날 가만뒀겠느냐"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시 채용 공고 기간이 짧았던 문제, 외부 지원자 2명이 지원해 2명이 다 합격한 것, 응시원서 대필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김재두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이 준용씨의 취업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방침을 밝힌 데 대해 "문 후보는 고소고발로 언론과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고소고발로 시간을 끌면서 대선 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이냐"며 "하필이면 거짓해명이 드러난 상황에서 왜 고발방침을 천명한 것인지 문 후보 측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문 후보와 민주당측은 국민의당 경선 과정의 '렌터카 동원' 문제와 안 후보가 참석했던 한 행사에 조폭(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앞세워

공세를 가하고 있다.

문 후보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린 이들 6명은 모두 전주의 유명 폭력 조직 소속으로 이중 4명은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 후보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진상을 파악해 보길 바란다. 거짓말로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 사안이 너무 중하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결국 국민의당이 대박이라고 자랑했던 경선은 차떼기로 만들어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박지원 대표와 안 후보는 전국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단 차떼기 동원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증은 좋지만 정말 제대로 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제가 조폭이랑 관련이 있을 리 없지 않느냐"고 의혹을 일축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도 "말도 안 되는 상대 헐뜯기 정치가 바로 적폐고 청산대상임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문 후보 캠프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박범계 의원은 또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가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낙하산 회장 선임과 부실기업 방만 인수를 전혀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gayunlove@news1.kr

文 41.3%, 安 34.5%, 洪 9.2%,...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

MBN·매일경제 의뢰 리얼미터 긴급 여론조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MBN과 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문 후보는 41.3%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안 후보는 34.5%를 기록했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9.2%)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3%), 심상정 정의당 후보(2.5%), 김종인 후보(1.2%)가 뒤를 이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홍 후보간 3자 가상대결에서도 문 후보가 44.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 안 후보는 38%, 홍 후보는 12.3%로 집계됐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문 후보(46.3%)가 안 후보(42.8%)를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화면접(CATI)과 유·무선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임의전화결기(RDD) 방법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8%다.

sanghwi@news1.kr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PR. 7 - APR. 13, 2017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SPICY FRIED CHICKEN WINGS

Treat yo' self to the ultimate KFC (Korean Fried Chicken)! It's crunchy, sweet, and irresistible. Finger lickin' good.

상상만해도 군침이 도는 바삭바삭, 매콤 달콤한 닭강정을 H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 Lotus Root 연근 \$1.88/pkg/for
-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29/lb
- Gobo 우엉 \$1.99/lb
-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3cmt/pkg \$7.99
- Ginger 생강 \$1.29/lb
- Packed Garlic पैक마늘 5cmt/pkg \$2\$3/pkg/for
- Nagaimo 일본 마 \$5.99/lb
- SOONYEOWON Tofu 수녀원 콩두부 Soft/Firm/Silken/14-16oz \$0.99
-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29/lb
- JAFFA Mandarin 자파 만다린 \$1.49/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Chicken Drumstick 치킨드럼스틱 \$1.49/lb
- Pork Spare Ribs for BBQ 바베크용 돼지갈비 \$3.49/lb
- Sliced Beef Chuck/Flap Tail 삼겹살구이 \$14.99/lb
- Pork Butt Chunk 돼지숙육복합 \$4.99/lb
- Beef Short Plate 냉동우삼겹살 \$7.99/lb
- Pateia Bone 냉동자른도가니 \$1.49/lb
-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8.99/lb
- Tuna Steak 튜나스테이크 \$9.99/lb
- TONGTONGBAY Dried Jiri Anchovy 동동배 지리 멸치 \$8.99/lb
-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2.99/lb
- Masago 마시고 \$9.99/pkg
- Faroe Islands Salmon Steak 패로 아일랜드 연어스테이크 \$6.99/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Kyung Gi Medium Grain Rice 정기대 15kg \$9.99
- KWANGCHUN Green Tea Sixwood Layer 광천농림 녹차임 0.7oz x 100ea/box \$9.99
- HAFU HAFU Premium 100% Pure Sesame Oil 하후하루 참기름 568oz \$12.99
-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박스 7.8oz x 100ea/box \$12.99

Big Brands SUPER SAVINGS!

하이마트 우수 브랜드 모음전
APR. 14th - APR. 23rd, 2017

- JFC Japanese Style Noodles Saruki Udon JFC 사누키 우동 \$3.99/44oz
- BONELLI Pure Grapeseed Oil 보넬리 도도씨유 24L \$5.99
- CJ Beef Flavor Soup Stock CJ 다시다 2.7lb \$9.99
- HAOREUM Pancakes/Frying Mix 해오름 튀김/부침가루 \$1.99/2.2lb
- DONWON Canned Tuna 동원 참치 2.25oz x 40ea/pkg \$7.99
- CHUNGJUNGONE Lunch Meat 정정원 연천 미트 \$2.99/10oz
- FOOCELL Vermicelli 푸드셀 콩국당면 \$2\$5/1.5lb
- MARUCHAN'S Noodle Yaki-soba 마루찬 니레 야키 소바 \$2\$5/16.9oz
- Crispy Roll 21 Grain Cracker 구워 만든 곡물그래놀라 크리스피롤 21곡 \$2.99/6.9oz
- AJINOMOTO Gyoza Dumpling 아지노모토 고지만두 48 Packets - 1.54lb \$5.99
- CHOWN Banana Choco Sundae Ice Helm 크라운 바나나 초콜렛아이스쿠키 \$0.99/13.1oz
- HAOREUM Banana Flavored Milk 해오름 바나나맛 우유 \$2.99/200ml x 6ea
- KITCHENART Living Modern Stainless Steel Pot Cookware 리빙모던 라임모던 냄급냄비 \$16.99
- GARSAHANSIL Pillow 감사한실 베개 \$10.99
- Check Slipper 체크 슬리퍼 \$1.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et,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et. All prices exclude applicable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3 Old Country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3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문재인, 문자폭탄 · 18원 후원금에 "양념" 발언해 논란

"치열 경쟁서 있을 수 있는 일...경쟁 더 흥미롭게 만들어"

(서울=뉴스1) 유기림,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가 일부 극성 지지자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에 대해 3일 "우리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 고척돔에서 열린 민주당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뒤 MBN과의 인터뷰에서 '아름다운 경선'이라고 했지만 18원 후원금, 문자폭탄, 상대후보 비방 댓글 등이 문 후보 측 지지자 카톡방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문 후보는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며 "문제는 그런 치열한 경선을 거치고 난 이후 어떻게 승복하고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 후보 캠프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후보 지

지분들께 호소드린다"며 "특히 문자폭탄이나 18원 후원금 등은 함께 해야 할 동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제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자"고 썼었다.

smith@news1.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3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수도권·강원·제주 선출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수도권 경선에서 1위를 차지, 누적합계 과반을 넘어서 결선투표 없이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됐다

'대세론 흔들' 文, 낮은 자세로 '누수차단'...의혹 '정면돌파'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대세론'을 앞세워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악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통합을 외친 뒤 하루 만에 비문(非文) 진영의 원이 탈당했고 대척점에 섰던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하고 비문연대 시동을 걸었다.

당내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가져왔다.

6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포함해 최근 발표되는 여론 수치는 문 후보측을 더욱 근심에 빠뜨리게 한다. 가상의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보다 뒤처지는 수치가 발끈하며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에 태클을 걸었지만 최근에는 다자구도에서도 오차범위내 접전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할 시 문 후보가 3자 혹은 4자 구도에서도 뒤처지는 결과가 나와 문 후보 측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 건은 범보수 진영을 포함해 야권 내에서조차 공격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가뜩이나 아들 특혜 의혹으로 정국의 중심에 섰던 문 후보는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임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의 음주사고 은폐 의혹에까지 물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연일 문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건과 민정수석실 은폐 의혹건을 물고 늘어지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문 후보에 대해 해명과는 다른 부분이 나오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일각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처럼 문 후보가 보수진영으로부터 물매를 맞으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휘청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러나 문 후보는 지난 2012년 때와는 달리 빠른 태세전환으로 위기 극복을 시도하는 형국이다. 분열 위기에는 빠른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는가 하면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실제로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사돈 음주운전 은폐 의혹에 대해 "이미 다뤄졌던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1교로 주상 작업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2003년도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중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그때부터 원리원칙대로 처리한 사건"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측 관계자도 "이미 한 번 다뤄진 사안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며 "네거티브에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지층을 결집하는데는 한껏 자세를 낮췄다.

경선 후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하는데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 후보는 전날 안 지사와 이 시장에 전화를 걸어 협력을 당부했다.

극성 지지자들에 의한 문자 폭탄에 대해 사과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dosool@news1.kr

박영선, 문재인 '양념' 발언에 "들켜버린 내면의 속살"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부 극성 지지자의 '문자 폭탄'과 '18원 후원금'을 '양념'에 빗댄 것과 관련해 "'양념'이라는 단어의 가벼움이 주는 그 한마디는 어쩌면 그 내면의 들켜버린 속살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념이라는 단어를 글에 올려 '양념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던지는 사람의 모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왔고 또 때론 즐거웠는지, 또한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늘 내 편 내 편에서 이루어져 온 것 자체가 다른 배려였지 않나 하"는"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상처 받고 심지어 생각하기도 싫은 험악한 일들이 벌어져왔다"며 "양념이라는 단어는 상처 받

은 사람에게에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도 양념이냐고 반문하면 분명 버럭 화를 낼 것"이라며 "실수라고 하기에 그 가벼움의 내면이 지나온 세월의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아침 양념이라는 단어를 놓고 내가 이렇게 긴 시간 사색하는 이유는 바로 지도자는 늘 누구의 도움 없이 외로운 판단의 순간을 맞고 그 판단의 순간 결정 요소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내공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girin@news1.kr



안희정 후보 캠프 멘토단장을 맡고 있는 더민주 박영선 의원

국민의당, 문재인 '양념발언' 여론조사 탄지에 맹폭

(서울=뉴스1) 박응진, 이원준 기자 = 국민의당은 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이 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전날(3일) 여론조사를 문제 삼고, 대선후보 확정 뒤 문 후보가 일부 극성 지지자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에 대해 "우리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말한 게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원내대표단 간담회 모두발언 및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세론이 무너지자 언론 탓, 여론조사 탓을 하는 게 패권"이라며 "문 후보는 선거에서 지면 국민 탓만 할 수 있는지,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는지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문 후보 측이 양자대결은 가상대결이고 왜곡조사라며 선관위 조사 의뢰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 불과 10개월 전 문 후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양자대결 승리를 대선으로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문 후보가 충격에 빠진 모양"이라며 "이기는 결과만 상식적이

란 것인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후보의 '양념' 발언에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다. 패권주의를 즐기고 있는 듯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해 "우리 정치가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비겁함, 의도적 무시전략이다"라며 "의혹이 불거지면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의혹을 제시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매도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박근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진상을 밝히는 노력을 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다. 설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감감이 채용에 대해 젊은이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다. 문 후보는 비겁함을 버리고 정직하고 국민에게 모든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pej86@news1.kr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p>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p>	<p>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p>	<p>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p>	<p>줄리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p>	<p>비비안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NEW LISTINGS				LISTINGS	
<p>Residential</p> <p>Single Family</p> <p>4 Sorens Way Bedford, MA 5 Bed, 3.5 Bath, 5,200 sf, Cut-de-sac. Open house this Sat, Sun Between 12-2pm Asking \$1,699,000</p>	<p>Residential</p> <p>Condo</p> <p>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및 Garage, 파킹. T- 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p>	<p>Commercial</p> <p>살롱 & 스파</p> <p>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p>	<p>1. Full Plant 플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p> <p>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p> <p>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p> <p>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p> <p>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p> <p>6.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p> <p>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p> <p>8.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p> <p>9.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p> <p>10.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p> <p>11. 미림 식품 : Allston SOLD</p> <p>12.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p> <p>13.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p> <p>14.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p> <p>15.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p> <p>16.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p> <p>17.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p> <p>18.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p> <p>NEW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일식당</p> <p>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컨비니언스 스토어</p> <p>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비즈니스 콘도</p> <p>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한국식당</p> <p>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세탁소</p> <p>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p>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檢, 이번엔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할 수 있을까

세월호수사 방해·'최순실 이권' 체육회 감사 의혹
우병우 구속으로 국정농단 수사 매듭 주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5개월 넘게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 전 수석의 신병마저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후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특검팀이 지목한 범죄사실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는데, 해당 혐의가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이 빠져나갈 범망을 촘촘하게 매울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 전까지 50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전산서버 등을 압수수색,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우선 특검팀이 수사대상 및 기간 한정으로 규명하지 못한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

사(57·18기)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25기)를 불러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캐물었다. 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로 세월호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광주지검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날 윤 차장검사와 통화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팀이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후 압수수색 문제를 국가기관(해경-검찰)끼리 현장에서 대치하는 것으로 판단, 상황만 파악하기 위해 수사팀에 전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방향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변 변호사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법무부가 현장 구조책임자

였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및 이사업에 대한 감사를 계획했던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이권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최씨 지원을 목적으로 감사를 계획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 지원한 것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거점 단위의 공공 스포츠클럽을 지원하려고 했다. 당시 이 사업은 문체부의 예산을 받아 대한체육회가 주도했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K스포츠클럽이 각 거점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총괄하고, 더블루K가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과 컨설팅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해 추진된 '스포츠 4대악(惡) 신고센터·합동수사반'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 했다는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박 특검도 수사종료 시점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가족회사 정강 자금 같은 것도 들어가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100% 발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난관도 있다. 우 전 수석은 특검팀의 영장 청구 당시에도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다루는 민정수석 업무의 연장 선상에서 행한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우 전 수석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유사한 논리로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월호 수사 외압과 관련, 검찰이 당시 우 전 수석의 의견을 전달받았을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아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가량 김수남 검

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는 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목인·방조했다는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정강을 둘러싼 배임 및 횡령 혐의,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자문회사 M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 등 개인비리도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모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cho84@news1.kr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옥중조사 9시간만 종료...혐의 부인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 후 두 번째 '옥중조사'가 9시간 20분여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조사 일정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6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8시19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도 구치소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2시간가량의 점심·저녁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는 7시간 동안 이뤄진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 4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조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 때 오후 4시30분쯤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오후 8시40분까지 조서를 확인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특수보수속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가 담당했다. 보조검사 1명, 여성수사관 1명도 함께 투입됐고, 조사에 필요한 집기 등이 갖춰진 별도 공간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유명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했다.

검찰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나갔다. 미르·K스포츠클럽 강제 모금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등 13개 혐의도 함께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농단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관련 혐의를 추궁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모른다' '선의를 위해 한 일이다' '참모진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출연금 역시 검찰이 뇌물로 엮었다는

등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공범 최씨 등과의 대질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의 공판 일정을 고려해 대질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죄 혐의 입증 등을 위해 앞으로 2~3차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9일까지인 1차 구속기간도 7일쯤 연장할 방침이다. 향후 조사에서는 한 부장검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이원석 부장검사도 투입될 예정이다.

1995년 구속된 노태

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각각 4차례, 8차례 옥중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차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효율적인 수용관리 등을 위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cho84@news1.kr



6일 오전 한웅재 부장검사 등이 탑승한 검찰 수사팀의 차량(뒤쪽)이 구속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조사를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형제 떡집

이주하느라 개업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3월 20일부터 주문 받습니다.



영업 시간

딜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보스톤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불법 다운로드... 비디오회...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KBS, MBC, tvN, O'live, OCN

Dedicated to Your Health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쏘아올린 北미사일, KN-15? 스커드ER?...한미 분석 혼선

한미 정보당국, 北 미사일 발사 분석 미국방부 달라
초기 분석 실패로 군 대응 체계 무력화 지적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일 북한이 동해 상으로 쏘아올린 미사일 1기에 대해 'KN-15계열'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외신 매체는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스커드-ER'로 분석했다. 시간상으로 봐서 나중에 나온 스커드-ER 미사일 분석이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북한 미사일 분석은 곧 우리 군의 대응 체계 및 방어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북 미사일 관별 등 첫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의 잘못된 진단에 따른 처방이 환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미사일의 종류'를 'KN-15계열'로 분석했다. 이보다 조금 앞서 미 태평양함대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같은 정보를 담은 분석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합참관계자는 미사일 관련 내용을 알리며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가 스커드-ER로 분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KN-15 계열과 스커드-ER은 외형은 물론 비행속도, 추진 연료, 비행 궤적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사일이 발사 직후 9분가량 비행했다고 분석했으나 미 국방부는 1분가량으로 분석

했다. 이같은 논란에 합참은 6일 한미 정보당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만 말할 뿐이다. 합참 관계자는 "전날 한미 공동으로 초기 분석 결과를 설명드린 것 이외에 현재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다른 분석이 존재하는 데도 전날 합참 발표만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분석 능력이 미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성사진 등 미측의 감시자산을 우리측은 확보하지 못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초기 분석 실패가 가져올 결과를 경고한다. 양국 한국국방안전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분석이 잘못되면 대응 방식도 잘못된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단계에서의 분석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 미사일이 실

전배치돼 운영되는 단계에서 미사일 분석이 잘못되면 우리 군이 투입할 자산, 병력이동 등 군사수단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다"고 말했다.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군이 잘못된 준비를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playingio@news1.kr



경남지사 보궐선거 없다?...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논란

(부산·경남=뉴스1) 이지안 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3조, 제200조, 제35조, 제203조 등)에 따르면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홍 지사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행정부지사가 사퇴 사실을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보궐선거 사유와 날짜가 확정된다. 다만 행정부지사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올해는 보궐선거가 4월 12일과 5월 9일에만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려면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4월 9일까지는 통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달 경남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내면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면서 "보궐선거가 열리면 선거비용 수백억 원이 든다. 경남도정은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홍 지사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4월 9일 자정 직전에 사퇴를 결정하고 행정부지사가 다음날인 10일 또는 그 이후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를 통보해도 공직선거법상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사임 날짜와 사임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98조를 보면 홍 지사는 사임 통지를 사임일 1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해야 한다. 사퇴 시한을 공직선거법은 4월 9일로, 지방자치법은 3월 30일로 보는 데서 차이가 발생한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은 선거 출마 자격이나 시기 등을 다루는 것이다. 즉 이번 경우 홍 지사가 대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은 도지사 사퇴 후 권한대행을 누가 하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3월 30일을 넘겼다 해서 제재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법은 층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상위에 있는지는 규정할 수 없다"면서 "결국 선거를 두 번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치르느냐, 1년 남짓의 권한대행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것이냐의 정책적 고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임 통지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지방자치 전공)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천재지변, 자연재해 같은 것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홍 지사의 경우 후보로 선출된 뒤에 전국을 돌며 활동 중인데 서면 통지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홍 지사가 3월 31일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최종 선출된 만큼 3월 30일에 사임 통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을지라도, 후보확정이 된 이후에는 곧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측 박훈 변호사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 날짜와 사임 방식을 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인 홍 지사는 지방자치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ian@news1.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남 시민단체가 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미세먼지 잡기 '총력전'... 5월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화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울타리 3차레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심각한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화는 5월부터 실시된다. 해당되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콘크리트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 5가지다. 이 5종 건설기계는 3만3000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그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4월 개정하고 5월부터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지게차부터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2018년 1월부터는 시 발주 전체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시행한다. 수도권 차량에만 적용 예정이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도 전국 차량으로 확대한다.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수산물공사 공공물류센터에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2005년 이전 2.5톤 이상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6월부터 폐지하고 9월부터는 주차장 진입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는 공공물류센터 출하차량 중 저공해 조치가 안 된 차량을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재해 단속한다. 수도권 출하차량은 올해 하반기 저공해조치 명령을 시행하고 2018년부터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수도권 외 출하차량은 법령 개정 후 2018년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법령을 개정해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 서울지역 운행제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35%가 경유버스인 서울 진입 경기·인천버스의 CNG버스 전환도 환경부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원인 비중이 높아지는 비산먼지 단속 강화를 위해 5월까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집흡입정소차 30대를 연대 확보하고 물청소차 운행률도 대폭 높인다. 파리지, 런던시와 공동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실행을 위해 정부와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을 협의하기로 했다. nevermind@news1.kr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 보스톤코리아 | 617-955-91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S등급 병원(최고 등급)

H+ 양지병원

새병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도약한 H+ 양지병원은 350 병상 확충과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 우수전문의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 양지병원

151-852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10-715

입원 종합검진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2. 흉터 검사 (순음형의 검사)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검사)
4. 임프식자 검사 (간염, 대상포, 흉선염, 난소암, 췌장암)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모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변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간경, 흉상, 암 흔적)
11. 노인 및 저부의 상담

80만원 - 65만원
남: 65만원 / 여: 75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흉부 (배)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4. 대장내시경수술	
5. 대장내시경수술	

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1. 가동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2. 흉터 검사 (순음형의 검사)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검사)
4. 임프식자 검사 (간염, 대상포, 흉선염, 난소암, 췌장암)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모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변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간경, 흉상, 암 흔적)
11. 노인 및 저부의 상담

230만원 - 240만원
남: 215만원 / 여: 225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뇌 MRA	
2. 뇌 MRI	
3. 전신영역 CT	
4. 흉부 (배) CT	
5. 심장 초음파	
6. 전립선 초음파	
7. 골밀도 검사	
8. 대장내시경수술	
9. 대장내시경수술	
10. 대장내시경수술	
11. 대장내시경수술	

당일 종합검진

당일 종합검진 기본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청력)
2. 흉터 검사 (순음형의 검사)
3.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검사)
4. 임프식자 검사 (간염, 대상포, 흉선염, 난소암, 췌장암)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모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변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간경, 흉상, 암 흔적)
11. 노인 및 저부의 상담

55만원 - 65만원
남: 50만원 / 여: 60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흉부 (배)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4. 대장내시경수술	
5. 대장내시경수술	

V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추가항목
FET CT
복부초음파 + 비만도 측정 +
호모시스테린 측정, 중풍예방상담

남: 350만원 / 여: 370만원

VVIP, VIP 종합검진 고객: 특별서비스 제공
 (1) 입원/외래 구분: 입원/외래 구분 없이 5시30분까지 제공
 (2) 입원/외래 구분: 서울지역 내의 검사에서만 직접 가능
 (3) 모, 노, 피부암 특별 건강 평가

★ 검사시간 및 혜택

- 당일 종합검진: 8:30am~12:30pm (목요일)
- 입원 종합검진: 3pm~입원2일째 1pm(1박 2일) / 1인실(2인실) 2인실, 3인실
- VIP 종합검진: 2pm~입원2일째 1pm(1박2일) / 1인실(2인실) 2인실, 3인실 / 골밀도 측정
- VVIP 종합검진: 2pm~입원3일째 1pm(2박3일) / 1인실(2인실) 2인실, 3인실 / 골밀도 측정



해외의료사업팀장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김수남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 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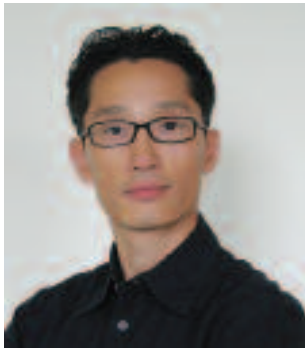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OT Kim
617.620.8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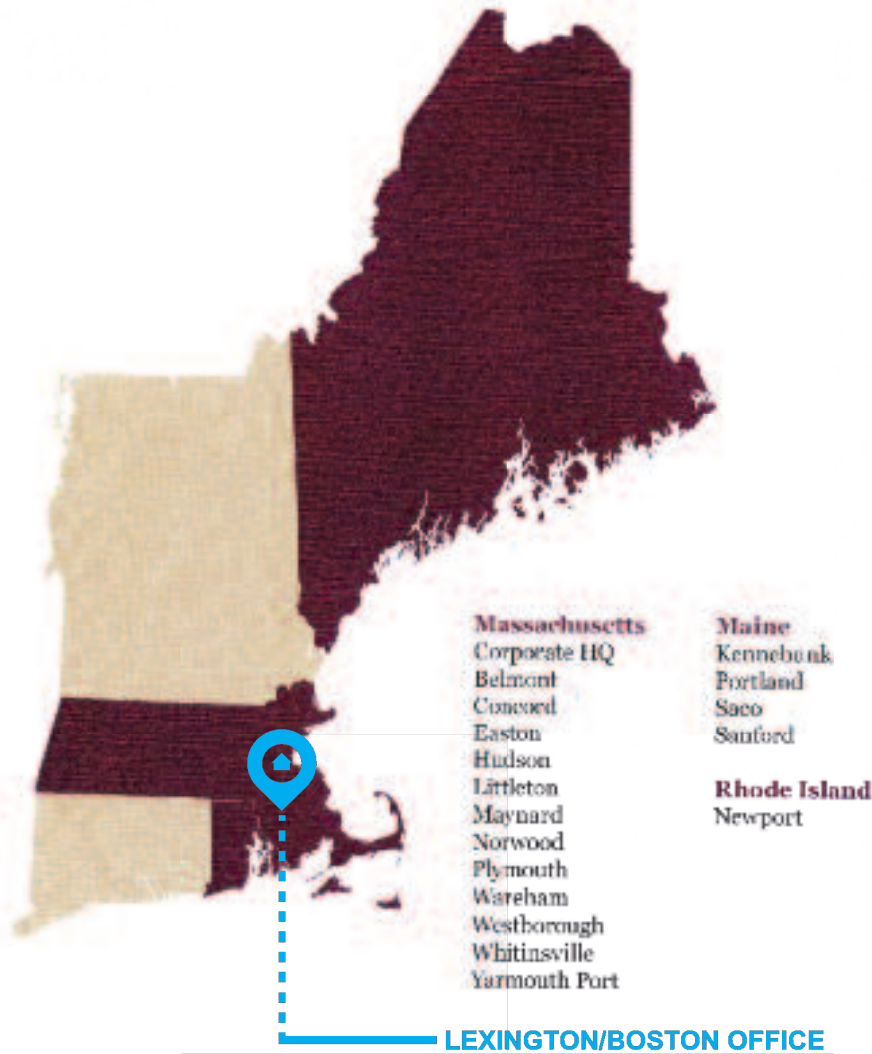
Angela Eleazar
617.319.6657



AI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스타 코너백 리차드 셔먼 트레이드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시호크스의 스타 코너백 리차드 셔먼의 트레이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2017 시즌에 NFL 최강의 코너백 듀오가 패트리어츠에서 활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호크스는 셔먼의 트레이드 요청을 여러 팀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셔먼의 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는 팀들 중에는 패트리어츠도 포함되어 있다. 시호크스 팀 관계자는 셔먼의 트레이드가 당장 하루 이틀 내에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NFL 드래프트가 열리는 4월 27일 전까지는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패트리어츠가 셔먼 트레이드에 뛰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패트리어츠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는 팀들도 있다. 무엇보다 패트리어츠는 현재 제한된 자유 계약 선수로 묶여 있는 말콤 버틀러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셔먼 트레이드의 선결 과제이다. 버틀러는 세인트루이스의 트레이드 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셔먼은 오래 전부터 빌 벨리치 감독과 패트리어츠 팀에 대해 존경의 뜻을 내비쳐 왔다. 이 때문에 셔먼이 패트리어츠로 트레이드 될 때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셔먼 트레이드가 현실화 될 경우 시호크스가 보상으로 무엇을 요구할지, 그리고 패트리어츠가 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패트리어츠는 올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와 2라운드 선택권이 없다. 패트리어츠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드래프트 선택권은 2개의 3라운드 선택권(전체 72, %순위)이다. 패트리어츠가 버틀러나 쿼터백 지미 거라폴로의 트레이드에 성공한다면 더 높은 드래프트 선택권이 생길 수도 있다.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셔먼 트레이드 시나리오는 다른 팀을 끼고 삼각 트레이드를 하는 것이다. 패트리어츠가 버틀러를 다른 팀에 트레이드를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드래프트 선택권을 시호크스에 보상으로 주고 셔먼을 트레이드 하는 것이다. 벨리치 감독은 시호크스의 피트 캐롤 감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맞으면 의외로 셔먼 트레이드가 빠르게 성사될 수도 있다.

역전히 버틀러가 2017 시즌에 패트리어츠에 복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버틀러가 패트리어츠의 최고 코너백이라고 할지라도 셔먼은 버틀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패트리어츠가 셔먼을 얻을 수만 있다



시호크스의 스타 코너백 리차드 셔먼의 패트리어츠 트레이드 설이 제기 되고 있다

면, 버틀러보다는 셔먼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패트리어츠는 자신의 코너백을 영입하며 세컨더리의 벽을 더욱 높게 세우고 있다. 지난 달 계약한 스테판 길모어는 6피트 1인치

다. 셔먼은 6피트 3인치다. 이에 반해 버틀러는 5피트 11인치다. 지난 시즌 패트리어츠에 트레이드 된 에릭 로이도 6피트 1인치다.

셔먼이 트레이드로 합류한다면, 패트리어츠는 명실 상부 리그 최고의 코

너백을 2명이나 보유하게 된다. 셔먼과 길모어는 실력과 연봉 면에서 모두 리그 최고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다.

jsi@bostonkorea.com

'출루머신' 추신수, 멀티출루... '플래툰' 김현수 결장

텍사스, 9회 만루홈런 등 5점 내주며 역전패

(서울=뉴스1) 이재상, 맹선호 기자 = '출루머신'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볼넷 2개 포함 3차례 출루에 성공했지만 팀의 역전패로 빛이 바랬다. 플래툰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상대팀 선발로 좌완 투수가 나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추신수는 5일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2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 2타수 무안타 2볼넷 2득점을 기록했다. 텍사스는 9회에만 5점을 내주면서 6-9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텍사스는 개막 이후 3연패의 수렁에 빠졌고 클리블랜드는 3연승을 질주했다.

이날 추신수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해 종전 타율 0.250(8타수 2안타)에서 0.200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멀티출루에 이어 2득점을 기록해 제몫을 해냈다. 또한 시즌 처음으로 우익수로 출전해 깔끔한 수비를 선보였다.

선발 콜 해럴드는 6이닝 5피안타(1피홈런) 1볼넷 4탈삼진 4실점(3자책점)을 기록했지만 볼펜의 방화로 고개를 떨궜다. 마무리 샘 다이슨은 9회에 만루홈런 포함 5점을 내주며 패전 투수가 됐다.

8회 아웃카운트 한 개를 잡은 클리블랜드 손 암스트롱이 승리를 챙겼고 9회 등판한 브라이언 쇼는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올렸다.

추신수는 1회 시즌 첫 볼넷으로 출루한 뒤 노마 마자라의 투런 홈런으로 홈 베이스를 밟았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선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텍사스가 4회와 5회 연이어 점수를 내주며 2-3으로 역전을 허용한 가운데 추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5회 2사 1, 2루에서 추신수가 나섰다. 유격수 땅볼을 쳤지만 운이 따랐다. 클리블랜드 유격수 프란시스코 린도어는 2루 베이스를 밟은 뒤 1루로 송구했는데 공이 뒤로 빠졌다. 주자들은 모두 살아나 홈까지 들어왔고 텍사스는 4-3으로 리드를 가져왔다. 추신수도 2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마자라가 중전 적시타를 때려 내며 추신수는 이날 두 번째 득점을 올렸다.

텍사스는 6회 린도어에게 솔로포를 맞았지만 7회 엘비스 앤드루스가 좌월 솔로 아치로 맞받아치며 2점 차 리드를 유지했다.

이어진 7회 공격에서 추신수는 또 다시 볼넷을 얻어 3번째 출루에 성공했다. 다만 출루 직후 대주자 라이언 루아와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첫승 기회를 잡았으나 텍사스는 9회를 버티지 못했다. 마무리 다이슨은 1사 만루에서 볼넷으로 1점을 내준 뒤 린도어에게 만루포를 얻어 맞고 덕아웃으로 들어갔다. 역전을 당한 텍사스는 9회말 득점에 실패해 씁쓸한 패배를 맛봤다.

김현수는 미국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에 결장했다. 볼티모어는 애덤 존스의 역전 투런포를 앞세워 토론토를 3-1로 물리치며 개막 후 2연승을 거뒀다.

김현수는 이날 좌완 투수 J.A. 햅이 선발로 나오자 플래툰시스템으로 인해 선발 라인업

에서 제외됐다. 벅 쇼월터 감독은 김현수 대신 조이 리카드를 1번 좌익수로 출전시켰다.

볼티모어는 0-1로 뒤지던 3회 존스의 좌월 2점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었고, 4회 크리스 데이비스의 중월 솔로 아치로 3-1까지 달아났다

볼티모어는 9회 마무리 잭 브리튼이 1사 만루의 위기까지 몰렸지만 스티브 피어스를 유격수 병살타로 돌려세우고 가까스로 승리를 따냈다.

볼티모어의 선발 딜런 번디는 7이닝 4피안타 8탈삼진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maeng@news1.kr



추신수가 5일 친정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멀티출루로 활약했다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촌: Allston



돼지꿈: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s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 본촌: 20% 절약
- 돼지꿈: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주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 Everett Parish of Convent Church

성삼일 미사 및 전례 안내

성목요일 (4/13)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4)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4/15)
9pm-부활 성아미사

부활절 (4/16)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 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전 3:15)

주일예배 / 오후 2:00 |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아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수) 7:30 | LIFE 모임/주일 4:00

담임 목사 / 우시창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톤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담임목사: 박일종 목사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유치부: 임성진 목사
유년부: 임재승 목사
유스: David Moon 강도사
청년/EM: David Moon 강도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선호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781.266.7245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Language Bridge, LLC

Language Bridge, LLC professional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gency, is currently looking for qualified, bilingual and bicultural native speakers who are willing to provide interpretation services on an as-needed basis in Massachusetts, Connecticut and New Hampshire.

We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for legal and medical organizations as well as for community-based agencies, schools, social services, and a variety of the institutions.

If you are interested to apply for the position at our company, visit our website(www.lbridge.com) and register as a new interpreter. The hiring manager from Language Bridge, LLC will contact you within 48 hours with additional information.

We work flexible hours and you will be able to pick your own assignments. Reliable transportation and internet access are required.

P.O. Box 60503, Longmeadow MA 0116
Phone: (413) 754-3488 Fax: (413) 567-1295
Email: info@lbridge.com
www.LBridge.com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기관 에듀 보스톤에서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 회계학 전공자 (또는 관련 전공자, 경영, 경제)
- Quickbook 사용가능자 우대
- 엑셀 사용가능자
- 영어/한국어 필수
- 보수 : \$40K
- 문의 : 617-254-1117, myung@eduboston.com
- 지원을 하실 분은 위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정식 지압가게에서 지압사 구함
사우스케롤라이나
T. 678-267-462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Turn Key! Japanese Sushi Restaurant Business for Sale!

Price drastically reduced by more than 50%! It was \$176,000, now only \$87,000!
Great high traffic (cars and foot) busy main road in major city in Boston.
Write detail about what you do now, no seller financing available.
Serious inquiries only, if interested write to: mikasarealty@yahoo.com for more detail.

지압가게 매매

지압가게 매매합니다.
사우스케롤라이나
T. 404-397-480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CS PLLC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콜/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글로벌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신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해군대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약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둔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둔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한미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메리맥 교회	401-821-2311
목양교회	978-806-1363
무지개교회	617-223-1690
밀양한인교회	207-774-1617
렉싱턴 풍성한교회	978-244-0691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953-0856
보스톤 국제교회	617-864-5948
보스톤 감리교회	617-459-6479
보스톤 사랑의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617-285-8870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978-844-2404
보스톤 새로남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교회	617-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서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2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7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머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얼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운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디케어	508-734-0446
케이티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샵롱	8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의재용)	617-421-2282
한서진내과	401-722-0305
한성신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진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형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카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영차우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617-871-1482
켄지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

'비절개 모발이식' 수술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 "절개와 비절개의 생착률을 비교한다면 밀도에 대한 사항도 반드시 고려해야"

탈모로 인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발이식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발이식의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절개 모발이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오로지 비절개 모발이식만을 시행하는 휴람-네트워크 병원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의 이규호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비절개 모발이식수술의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모발 절취



모발 카운트 & 본드



비절개 모발이식 동시진행

◎ 비절개식은 눈썹, 흉터이식과 같이 이식량이 적은 수술에 적합하고 대량이식은 절개법이 적절하다? : 비절개식 수술은 이식할 모낭을 하나하나 채취하다 보니 절개식 보다 모낭채취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다 보니 대량 이식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채취된 모낭을 장시간 보존할 용액의 발달과 채취와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술법의 개발 등으로 1회 수술량은 절개식보다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대량이식을 위해서는 비절개식을 해야되는 역전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절개식으로 4,000 모낭 이상을 시술할 수 있을까?

◎ 생착률은 절개식이 더 뛰어나다? : 절개식의 생착률은 보통 80~90%라고 이야기를 한다. 과거에는 비절개 모낭 채취시 모발 손상율이 높아 심은 모발이 잘 자라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펀치 채취 기술의 발전과 6배율 이상의 확대경(루페) 작업으로 지금은 손상을

이 2~3% 내외로, 절개식에서 절개해 얻은 두피(Strip)에서 모낭을 분리할 때의 손상율과 비슷하거나 더 낮다. 결코 생착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에 99%, 100% 생착율이라고 자신있게 써 놓기도 하는데, 사람이 생명이 있는 세포를 다루는 것이기에 100%는 조금 과장된 내용일 수 있다. 생착률이란 용어에는 한가지 맹점이 있는데, 생착률이란 심은 모발 수에 대해 살아 자라 나온 모발수의 비율을 말한다. 100개를 심어 90개가 살아 자라나면 생착률은 90%다. 그러나 여기에 밀도라는 변수는 제외되어 있다. 모발이식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려면 디자인과 밀도가 따라와야 한다. 정상밀도의 50%도 되지 않는 밀도를 심어 두고 90% 생착이 되었다고 한들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상당히 낮을 것이다. 최소한 60% 이상의 밀도는 심겨져야 환자가 밀도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을 하게 된다. 1cm 이내 정상 모낭수가 60~80개라고 한다면 단위면적당 40모낭 이상 심겨져야 한다. 하지만 절개식을 이용

해 시술하게 되면 식모기를 사용하여 심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낮은 밀도로 시술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슬릿 방식은 단위면적당 40모낭 이상을 심을 수 있다. 이제 생착률을 비교한다면 밀도에 대한 사항도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고밀도에서도 높은 생착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력인 것이다.

◎ 비절개식 펀치 채취부위는 쥐가 파먹은 듯한(곰보같은) 등성한 원형의 큰 흉터가 남는다? : 과거에 직경 4mm의 펀치를 사용해 뒷머리를 채취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2~4개의 모낭을 한꺼번에 채취했기 때문에 같이 잘린 조직의 크기도 컸다. 그러나 이제 1mm 이하의 펀치를 사용해 1개의 모낭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사이즈로 바뀌어 펀치로 인한 흉터가 작은 DOT처럼 보이게 되어 실제로 큰 흉터가 나지 않는다. 물론 머리카락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조직들도 같이 채취하므로 나오는 조직의 전체 면적은 절개식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채취부위가 작은 상처로 독립되어 있기에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비절개식은 동양인의 모발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다? : 동양인의 모발의 특징은 서양인의 것과 다르다. 색깔이 진하고 모발이 굵고 거칠고 직모 형태이고 전체적 밀도가 낮고 모낭당 모발수가 적다. 채취할 양이 서양인보다 적어 한번에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절개식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비절개식 채취 시 손상이 잘되고 이식된 곳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껏 많은 동양인에게 시술이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선택적으로 모발을 채취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이식할 때 모발의 방향과 각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식 후 부자연스럽다? : 비절개식 채취 시 일반적으로 삭발을 하기 때문에 모발의 길이가 짧아 모발의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추측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6배 확대경을 쓰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 모발실제 모발의 각도와 방향을 읽고 심게 된다. 오히려 맨눈으로 식모기로 이식을 하는 절개식 방식보다 더 유리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다. 간혹 제대로 시술을 갖추지 않고 수술하는 곳도 있는데 심지어 수술조명도 없이 형광등 아래에서 맨눈으로 모낭을 분리하고 이식을 하는 곳도 있다. 비절개식 모발이식의 또 하나의 장점은 모낭의 선별 채취다. 수술부위에 따라 이식에 적합한 모발의 성질이 있다. 두껍고 힘있는 모발, 모낭당 모발수가 많은 것, 부드럽고 가는 모발 등 필요에 따라 골라서 채취할 수 있기에 훨씬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이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념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2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프리즌', 조폭→죄수? 교도소로 이사 간 한국형 누아르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주로 조직폭력배와 경찰, 정치인의 세계를 다루는 한국형 누아르의 세계가 교도소로 배경을 옮겼다. 교도소 안, 죄수와 간수의 은밀한 협력 관계, 속을 알 수 없는 주인공들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주는 불안한 긴장감을 영화 '프리즌'(나현 감독)을 끌고 가는 힘이다.

'프리즌'은 한 교도소에 뺑소니, 증거인멸, 경찰 매수 혐의로 검거된 전직 경찰 유건(김래원 분)이 입소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가 들어간 교도소는 교도소장까지 꼼짝 못하는 실세 의혹의 지배 아래 있다. 의혹의 권력은 어마어마해서 웬만한 조폭들도 그의 밑에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갈 정도다.

'프리즌'이 묘사하는 교도소는 무법지다. 갖가지 범죄 기술로 무장한 재소자들은 의혹의 지휘 아래 사회로 나가 밤새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돌아온다. 교도소장 및 간수들은 이를 눈감아 준 대가로 배를 불린다.

나현 감독에 따르면 교도소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교도소 재소자들 역시 무질서하고 험해진다. 영화의 배경이 90년대 중반인 것도 그 때문이다. 경제 침체와 사회적 혼란이 가득했던 시대에서만 '범죄 소굴 교도소'라는 콘셉트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같은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지만, '프리즌'은 '검사외전'과는 맥을 달리한다. '검사외전'이 두 주인공 캐릭터의 코믹한 충돌로 웃음을 가득 담고 있었다면, '프리즌'은 '신세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진중한 분위기를 끌고 가는 누아르 영화에 가깝다. 속내를 감추는 캐릭터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감 가득한 눈치 게임이 이 영화의 '노림수'다.

그러나 그 '노림수'가 제대로 작용했는지는 의문이다. 적당히 긴장감을 풀어주는 유머나 누아르 영화에서 기대할 만한 캐릭터들간의 끈적한 '케미스트리'가 부족해 결말의 여운이 크지 않은 느낌이다. 다만, 끝까지 놓지 않는 긴장감과 다양한 액션신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배우들의 연기는 예상했던 만큼 좋다. 김래원은 제멋대로인 겁 없는 전직 경찰 유건의 캐릭터를 날카롭게 표현해 낸다. 한석규는 의문스럽고 주도면밀한 악인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조재윤, 김성균 등 조연의 연기도 빛을 발한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맞게 폭력성의 수위가 높아 남녀노소 모두 즐기기는 어렵겠지만, 색다른 누아르를 원하는 관객들에게는 불만한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jenej@news1.kr

유재석X조동아리 재회 '해투3' 후반전 기대되는 이유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조동아리 4인이 KBS2 '해피투게더3'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

'해피투게더3'(이하 해투3) 측은 4일 "조동아리 김용만과 지석진, 김수용, 박수홍이 MC 유재석과 함께 '해투3'의 후반부를 이끈다. 조동아리와 함께하는 첫 녹화는 오는 4월29일로 예정돼 있으며 오는 5월 방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해투3'는 1부와 2부의 토크쇼 색깔을 완전히 달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부는 기존 '해투3' 멤버인 유재석 외 박명수와 전현무, 조세호와 엄현경이 이끌고 2부는 조동아리 4인이 이끌게 된 것. 조동아리는 유재석을 비롯해 김용만, 지석진, 김수용, 박수홍을 멤버로 하는,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수다를 떠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연예계 사조적으로 지난 2월 '해투3'에 출연해 활약을 펼친 바 있다.

제작진이 이 같은 결심을 한 데는 당시 조

동아리가 유재석과 기대 이상의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재석과 조동아리의 친분이 깊은 만큼, 남다른 예능 호흡과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에 제작진은 "조동아리의 '해투3' 출연을 계기로 이들이 출연하는 별도의 예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많았고, 이를 진지하게 수용했다"는 말을 전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현재 제작진은 조동아리의 캐릭터쇼라는 기본 골자를 두고 세부 구성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다. 2부의 토크쇼는 캐릭터쇼를 기반으로 해 차별화된 웃음을 피할 예정인 것. 그간 '해투3' 2부 구성에 변화가 잦았던 만큼,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능 베테랑들의 조합에 제작진의 새로운 포맷이 더해져 어떤 모습으로 새 단장될지, 이번 코너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luemchang@news1.kr



이효리 측 "컴백은 대선 이후...신중히 곡 작업 중"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컴백을 예고한 가수 이효리가 신중히 곡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 측 관계자는 4일 뉴스에 "이효리의 컴백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타이틀 곡 가사를 수정하며 신중하게 곡 작업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컴백은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중에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가사가 잘 나온다면 5월 중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김형석이 대표로 있는 키위미디어그룹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김형석과 이효리는 음악 작업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으며 신곡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효리가 5월 컴백할 경우, 지난 2013년 5월 '모로크롬' 발표 이후 약 4년만에 무대에서는 것이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hnh1@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3월 27일 ~ 2017년 4월 2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7.6%
2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6.3%
3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4.6%
4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22.7%
5	KBS1	KBS9시뉴스	17.2%
6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16.9%
7	SBS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6.8%
8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훗친도적)	15.7%
9	SBS	월화드라마(갯속말)	14.4%
10	SBS	정글의법칙IN수마트라	13.4%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3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4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5	MBC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6	MBC	일일특별기획(황금주머니)
7	SBS	아침연속극(아임쏘리강남구)
8	MBC	MBC아침드라마(언제나봄날)
9	KBS2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10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밤편지	아이유
02	얼굴 찡푸리지 말아요	하이라이트
03	KNOCK KNOCK	TWICE
04	부담이 돼 (Feat. 휘인 Of 마마무)	정키
05	Marry Me	마크툽, 구윤희
06	Fine	대연
07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8	Rookie	레드벨벳
09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10	봄날	방탄소년단

숫자 퍼즐 (Sudoku)

9					8	6		
		4		9		8		
	3		6			7		5
	4			5		1	7	
			1		7			
	6	1		3			2	
5		3			4		6	
		7		6		9		
		6	5					7

4월 9일 - 4월 1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p> <p>●운수: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는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라. ●금전:차분하게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흥분할수록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애정:말 한 마디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오랜 연인도 긴 세월동안 살았던 부부도 상처를 주는 말 한 마디 때문에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소띠 희망적인 결과를</p> <p>●운수: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됩니다. 기쁨이 떨어진 자동 차처럼 멈추어 있다가 기쁨이 채워지니 다시 뿔뿔 날리게 됩니다. ●금전:새롭게 개발한 것이 반응이 좋고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금전적인 이득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좀처럼 곁을 주기 않아서 힘들었던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2,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범띠 동전의 양면처럼</p> <p>●운수: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동전의 양면처럼 보고 있는 반대편의 다른 모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금전: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내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애정:더 이상 미련을 갖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p>
<p>토끼띠 붓물 터지듯 한꺼번에</p> <p>●운수:이대로 놔두면 흐지부지될까봐 염려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필요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해야 합니다. ●금전:자신도 모르게 돈이 세어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원인을 찾아서 더 이상의 출혈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애정:중동안 참고 참았던 것이 붓물 터지듯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은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1, 14일 길일, 13, 15일 주의.</p>	<p>용띠 이 순간을 즐기는</p> <p>●운수: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일단 된다고 믿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자신을 위한 지출을 과감하게 해보세요. 미래를 위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가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애정: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하도록 하세요.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0, 15일 길일, 9, 14일 주의.</p>	<p>뱀띠 미리 알려주는 전조가</p> <p>●운수:모든 일에는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뿐입니다. ●금전:이득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메마나 계약은 가급적이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애정: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군요. 아까운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2, 13일 길일, 9, 15일 주의.</p>
<p>말띠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호박처럼</p> <p>●운수:진정한 성공은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호박처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서 얻은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금전:금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애정: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9, 14일 길일, 10, 13일 주의.</p>	<p>양띠 타협하는 것이 필요</p> <p>●운수:신념을 지키고 원리원칙에 충실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금전용통이 되면서 한시름 덜게 되겠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던 끝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애정:자신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항우장사처럼 굳세고 힘이 강해도 자식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0, 13일 길일, 9, 14일 주의.</p>	<p>원숭이띠 중립을 지키는 것이</p> <p>●운수:세 사람만 우거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꼭 옳은 것도 정답도 아닙니다. ●금전: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등 갑자기 돈 쓸 일이 있겠습니다. ●애정:서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1, 15일 길일, 9, 12일 주의.</p>
<p>닭띠 혼자서 결정하려 하지 말고</p> <p>●운수: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결국 문제가 됩니다. ●금전:손해 보는 쪽으로 따라갈 위험이 있으니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믿음만한 사람과 상의하거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시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개띠 적절한 타이밍이</p> <p>●운수: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에게 적절한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얻는 것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남동쪽으로 움직이면 얻는 것이 크겠습니다. ●애정:때로는 숨기거나 감추기보다는 가감 없이 속에 있는 말을 꺼내 놓는 것이 좋은 해결책을 가져다줍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0, 13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돼지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p> <p>●운수:무조건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쳐서 문제 해결을 하는 시도해야 합니다. ●금전:기대하는 마음이 크다보면 돌아오는 결과 때문에 느낄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정:하루에 여러 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의 시기로 들어가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게 되기 쉽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0, 14일 길일, 9, 12일 주의.</p>

이준기♥전혜빈, 2년 만에 밝힌 열애 "확신에 시간 걸려"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배우 이준기와 전혜빈이 열애를 인정했다. 2015년 첫 열애설이 불거져 나온 후 2년 만이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첫 열애설 당시만 해도 친구사이였으나 2016년 상반기부터 서로의 감정에 확신을 얻고 사귀기 시작했다



이준기와 전혜빈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두 배우의 열애를 인정했다. 이날 소속사 측은 "이준기, 전혜빈 배우는 2014년 드라마를 통해 동료로 만났고 처음 열애설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열애설 당시 사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

이어 "두 사람은 2016년 상반기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라며 "친구로 지내으면서 서로 공통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됐고 호감을 느꼈지만, 그 감정에 대해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알렸다. 두 사람이 실제 알게 되고 열애로 이어지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고, 2015년에 터졌던 세 차례 열애설과 그에 대한 부인이 모두 진실이었음을 강조하는 해명이다.

지성, 이보영부터 시작해 이상우-김소연, 주상욱-차예련까지 한 작품

에서 만난 배우들이 연이어 열애 사실을 공개하고 결혼에까지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열애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준기, 전혜빈이지만, '열애 선배'들의 뒤를 따라 좋은 결실을 맺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감을 준다.

eujenej@news1.kr



'해피투게더3' 친구,이일화 나란히 쌍꺼풀 성형 수술 고백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해피투게더'에 출연한 배우 친구와 이일화가 성형수술 사실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이일화는 6일 밤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 3'에서 "예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잘못 돼 방송활동을 하기 싫었던 때가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 때 성형외과에 다시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뭐라 말을 못 하고 돌아왔다. 뭐라고 말 한마디 해볼 것을 후회가 많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일화는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그때는 눈 때문에 연기에 제약이 많이 받았다"며 "이후 코와 입도 성형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안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성형수술에 관한 에피소드를 밝혔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는 덩달아 "나도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돌연 성형 고백을 했다. 친구는 "속초에 가서 받았다. 아는 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해줬다. 나도 수술이 잘못 돼 눈 때문에 방송하기 싫은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눈을 수술 하기 전에는 마라톤이나 이봉주와 비슷한 느낌이었다"며 이봉주의 표정을 따라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해피투게더3'에는 영화 '아빠는 딸'에서 활약한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jim928@news1.kr

오상진 "열애공개 이유? 김연아와 사권단 루머에..."

(서울=뉴스1스타) 장수민 기자 = '오상진이 김소영 아나운서와 공개열애를 하게 된 이유를 털어냈다. 5일 MBC '라디오스타'에선 오상진이 출연, 김소영 아나운서와의 러브스토리를 털어냈다.

이날 오상진은 김소영 아나운서와

의 열애를 공개한 이유를 털어냈다. 그는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라. 연예부 기자였는데 다음날 열애설이 터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상대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피겨여왕 김연아라고 하더라. 김연아 씨와의 스캔들 루

머 때문에 파파라치가 다섯팀이 붙었다"며 김소영과 공개연애를 하게 된 사연을 털어냈다.

또한 이날 오상진은 김소영 아나운서가 방탄소년단의 광팬이라고 털어놓으며 눈길을 모았다.

galaxy9@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귓속말' 1시간이 10분처럼...이보영X이상윤 짜릿한 역공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귓속말'이 숨막히는 스토리 전개와 짜릿한 역공으로 눈 뿜 수 없는 흡입력을 선사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연출 이명우) 4회에서는 신영주(이보영 분)와 이동준(이상윤 분)이 강정일(권율 분)을 잡기 위해 손을 잡는 모습이 그려졌다.

신영주는 강정일의 함정에 빠진 이동준을 구했다. 그는 이동준에게 강정일을 함께 잡을지 결정을 요구했고, 이동준은 신영주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신영주와 이동준, 강정일과 최수연(박세영 분)의 전선이 형성됐다.

이동준은 최수연에게 낯선 경고를 하고 강정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동준을 대신해 M&A 미팅 장소에 등장한 최일환(김갑수 분)은 강정일에게 살인 혐의로 감옥에 보내겠다 일격을 날리며 전세를 뒤집었다. 역공에 나선 최수연은 아버지 최일환에게 강정일과 공범이라 자수할 거라고 협박했고, 최일환은 결국 딸에게 굴복했다. 강정일은 이동준이 신영주에게 동침 영상으로 협박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번 편은 얽치락뒤치락, 반격에 반격을 더해가는 등장인물 간의 싸움으로 더욱 쫄깃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시간이 금세 지나간 듯한 강한 흡입력을 발휘하면서 눈길을 고정시켰다.

ppbn@news1.kr

티보플레이 3월 5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빛나라 은수
2	KBS	아버지가 이상해
3	KBS	다시 첫사랑
4	SBS	우리 갑순이
5	MBC	행복을 주는 사람
6	MBC	황금주머니
7	SBS	아임쏘리 강남구
8	MBC	언제나 봄날
9	KBS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10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티보플레이 3월 5째주 신규 방송

1	CJ E&M	시간을달리는남자
2	KBS	독한일꾼들
3	SBS	귓속말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1	재심	정우, 강하늘
---	----	---------

'재심' 정우X강하늘, 두 남자의 진심이 완성한 휴먼 드라마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정우와 강하늘의 '재심'이 언론시사회를 통해 공개됐다. 현재도 진행 중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판결을 토대로 한 실화라는 점과 정우와 강하늘이 재심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교류해가는 과정이 감동을 안겼다. '재심'은 부조리한 수사 과정과 판결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주인공의 고발극이라기 보단 감동 짙은, 희망을 안기는 휴먼 드라마에 가까웠다. 정우와 강하늘은 진심이 느껴지는 열연으로 영화를 완성했다.

'재심'은 지난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벼랑 끝에 몰린 변호사 준영(정우 분)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현우(강하늘 분)가 다시 한번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aluem_chang@news1.kr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우리의 가슴 속에는 고요하고 맑으며 밝은 문이 있는가 하면 번거롭고 혼탁하여 어두운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야 하는지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후회스러웠던 일들은 가슴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각성해서 새로운 창을 열어야 합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자의 발자취” 중에서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역가탄신일

봉축법회: 불기 2561년 (2017년) 4월 30일 일요일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제3부: 오후 3시 수계식

재가 불자로서 오계의 가치를 지키며 살겠다는 맹세를 하는 의식입니다. 불명이 있으신 분도 새롭게 계를 받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지스님께 미리 신청 바랍니다.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 행사 당일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문수사로 연락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요가: 화/목요일 저녁 7:30-9:00시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불자님과 함께하시길...

회주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

MUNSUSA TEMPLE
자연스레움이 아름다운 도량



신영의 **세상 스케치**

59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젊음이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엊그제는 때늦은 눈이 내리더니 이내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야 어찌 어린아이들 뿐일까. 긴 겨울을 보내며 답답해도 자동차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뉴잉글랜드 지역(보스턴 근방)의 어르신들일 것이다. 자식들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이유이지만, 그렇다고 딱히 바쁘게 사는 자식들에게 매번 부탁하는 것도 미안해 그만두실 때가 많은 것이다. 자식인들 부모님의 그 마음을 어찌 모를까마는 직장장과 비즈니스 그리고 아이들 학교 등학교와 방과 후 운동과 과외 등으로 라이드를 하다 보면 그것마저도 시간이 빠듯한 것이다.

보스턴에는 노인들 모임이 몇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스턴한미노인회(유영심 회장)>의 활동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다. 노인회 모임은 한 달에 2회 있는데 50여 명의 노인회 회원들이 참석하고 그 외의 젊은 몇 분도 참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모임을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 중에는 운전, 음식 준비, 요가, 기타반주, 미용, 전통예술(한국 무용과 악기) 등이 있다. 맛난 음식을 준비해 어른들께 대접하고 요가와 전통춤과 악기를 기초부터 안내하고 가르쳐드리는 모습

에 그 정성에 감동을 받았다. 이 노인회를 이끌어 가시는 유영심 회장님께 큰 박수를 드린다.

2017년 처음 노인회 모임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BLS(박진영 & Julia Lee)에서 볼링팀과 난타팀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보스턴한미노인회>에서 봉사 활동(전통춤과 악기)을 하고 있던 Julia Lee님과 인연으로 전통 북과 난타를 함께 배우고 나누게 되었다. 이처럼 어른들과 배우고 나누는 기쁨은 참으로 크다. 난타뿐만이 아닌 노인회 어른들과 함께 요가도 함께 따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음식을 준비하는 바쁜 손길들을 돕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들지만,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일과 시간에 충실하며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보스턴한미노인회> 회원분들의 평균 연세는 일흔셋은 되신듯 싶었다. 그 연세를 잊고 열심히 끈기의 그 열정적인 모습에 어찌나 신바람이 일렁이던지 젊은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요가를 가르치는 감사님을 따라하는 중에도 어른들의 유연하신 동작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 모

습에 감동하고 말았다. 내가 몰랐던 또 하나의 세상과 마주하며 그 시간이 되면 기다려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삶의 얘기와 함께 나이를 잊은 시간 서로 담소하시며 화들짝 웃으실 때는 어린 소년 소녀가 된 듯 맑고 밝아보여 좋았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자식을 데리고 이민을 왔든 자식을 따라 이민을 오셨든 간에 내 조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생활은 모두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훌쩍 내 조국 내 나라가 좋다고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이렇듯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적정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이처럼 고마운 사람들과의 모임이 어디 있겠는가.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보스턴 영사관의 총영사님과 그 외의 분들 그리고 회장을 맡아 열심과 열정으로 이끌어가는 유영심 회장님 그 외의 임원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어찌 이렇듯 귀한 모임이 이어갈지 수 있었을까.

어른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어찌 없으실까마는 그래도 이렇게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

고 운동을 하면서 자식들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도 달래고 바쁘게 사는 자식들에게 넉넉한 덕담도 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것이 뭐 있을까 말이다. 자식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살아 늘 송구스럽고 죄스러웠는데 이렇듯 <보스턴한미노인회> 모임으로 맑고 밝게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해 하는 것이다.

"젊음이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늙음도 우리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며칠 전 어디에서 읽었는지, 들었는지 내 작은 수첩에 메모가 되어 있다. 그렇다, 어찌 노인인들 깔깔거리며 동무들과 손잡고 놀던 어린 시절이 없었겠으며, 그 푸릇푸릇하던 높은 꿈과 이상의 젊은 시절이 없었겠는가. 어느 가수의 유행가 가사처럼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라고' 하지 않던가. 어른들에게서는 젊은이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삶의 굴곡마다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치고 깎이던 그 경험들이 바로 그 어른들의 '지혜'가 된 것이리라.



한담객설閑談客說: 신 포도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었다. 그의 취미가 고상했다. 와인에 대해 깊이 공부했고, 제법 일가견을 갖췄다. 상당한 돈을 와인을 사들이는데 쓴다고 고백했다. 그의 좁은 집에도 와인 저장고를 갖추고 있었다. 내 눈엔 별 취미도 다있다고 생각했다. 내게 와인은 마시는 술일뿐, 완상玩賞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게 명칭한 질문을 했다. 어떻게 좋은 와인이나? 대답이 경쾌했다. '제 입에 맞는 와인.' 내가 무릎을 쳤다. 값 비싼 와인을 맛볼 기회가 닿으면, 도무지 맛이 나지 않는다. 가격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가 오피스에 들어섰다. 얼굴이 밝지 않았다. 그가 털어놨다. 일본에서 몇 친한 친구들이 놀러 왔단다. 밤새워 와인을 나눠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탁했다. '다른 와인은 다 마셔도 된다. 하지만 이것만은 마시지 말고, 아예 생각도 말라.' 아끼던 와인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퇴근하고 보니, 그 와인 한 케이스를 모조리 비웠단다. 한 두병도 아닌바 모조리 마셔 버린 거다. 방안에는 빈병들만 뒹굴었음은 불문가지였다. 찾아온 친구들에게 우정

도 맛있는 포도주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거다. 위로할 만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너무 열받아 씩씩거리며 투덜댔기 때문이다.

곧 부활절이다. 부활절과 포도주는 관계있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시어진다. 식초맛이 난다는 말이다. 옛적 로마시대에는 신포도주를 포카리스라 불렀다. 이 신포도주 일정량을 병사들에게 급료로 지급했다. 먹을 물이 귀했으니, 싸구려 신포도주는 귀한 음료였다.

지금이야 포장마차이다. 내 선친세대엔 목로주점이란 더 친근했을 것이다. 아니 대포집이란 말이 더 가깝다. 그런데 포장마차건 목로주점건 대포집건 포도주는 팔지 않는다. 그래도 한잔 포도주는 가까운 친구와 나눠 마셔야 제맛이다. 어느 한국술 선전 문구다. 내게도 역사가 부러워할 우정이 있다. 괜히 몇자 끌적이다 보니 목만 꼰꼰하다. 아내 몰래 한잔 꺼내 마시나?

한사람이 달려가서 해운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마가 15:36)

두어 주 전前이다. 보스톤 한인교회 이영길 목사 설교중이었다. 초반에 머리가 복잡해 졌다. 이연실의 목로주점 가요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절이었는데, 내겐 1절이 더 가깝다. 옮겨 적는다. 들으면 더 아련하다.

....

멋드러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

이왕이면 더 큰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

오늘도 목로주점 흥바람 벽엔
삼십축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목로주점, 이연실 작사 작곡 노래)

옛직장 동료가 있다. 동연배同年輩 일본인이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p>2017 Hyundai Elantra SE</p> <p><i>This vehicle features:</i> 3.5-inch Segment LCD Cluster Display, AM/FM/XM radio</p> <p>FWD, Automatic, HQ11289</p> <p>LEASE: \$6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p> <p>PURCHASE: \$15,631 MSRP: \$16,800 Incentives: \$1,169 Price Includes: \$2,231</p> <p>FINANCE: 0.9% APR Residual: \$12,600 Purchase Price: \$15,631</p>	<p>2016 Hyundai Elantra SE</p> <p><i>This vehicle features:</i>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p> <p>FWD, Manual, HQ11603</p> <p>LEASE: \$8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p> <p>PURCHASE: \$13,290 MSRP: \$14,500 Incentives: \$1,210 Price Includes: \$1,330</p> <p>FINANCE: 0% APR Applied to 24 months with \$9,999 MSRP. \$1,000 cash rebate available.</p>	<p>2016 Hyundai Accent GLS Sedan</p> <p><i>This vehicle features:</i> Bluetooth, Heated Mirrors, Sirius XM Radio, Power Windows/Locks, Remote Keyless Entry</p> <p>FWD, Automatic, HQ11525</p> <p>LEASE: \$11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p> <p>PURCHASE: \$12,798 MSRP: \$14,000 Incentives: \$1,202 Price Includes: \$1,202</p> <p>FINANCE: 0% APR Available for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p>
<p>2017 Genesis G80 3.8</p> <p><i>This vehicle features:</i> Premium Pkg, Blindspot detection, Rear cross traffic alert, HTRAC AWD</p> <p>AWD, Automatic, HQ11680</p> <p>LEASE: \$41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2,000 down payment</p> <p>PURCHASE: \$45,500 MSRP: \$46,000 Incentives: \$500 Price Includes: \$2,000</p> <p>FINANCE: 1.9% APR Residual: \$31,000 Purchase Price: \$45,500</p>	<p>2017 Hyundai Santa Fe Sport</p> <p><i>This vehicle features:</i>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p> <p>AWD, Automatic, HQ11629</p> <p>LEASE: \$12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2,000 down payment</p> <p>PURCHASE: \$23,527 MSRP: \$24,500 Incentives: \$973 Price Includes: \$2,433</p> <p>FINANCE: 0.9% APR Applied to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p>	<p>2017 Hyundai Tucson SE</p> <p><i>This vehicle features:</i> Drivers Blind Spot Mirror, 5 inch Color Touchscreen Audio, Rearview camera</p> <p>FWD, Automatic, HQ11289</p> <p>LEASE: \$175/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2,000 down payment</p> <p>PURCHASE: \$20,248 MSRP: \$21,000 Incentives: \$752 Price Includes: \$2,000</p> <p>FINANCE: 0% APR Available for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p>
<p>2017 Hyundai Sonata SE</p> <p><i>This vehicle features:</i> Rearview Camera, 16" Alloy Wheels, Bluetooth, Sirius XM</p> <p>FWD, Automatic, HQ11830</p> <p>LEASE: \$12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p> <p>PURCHASE: \$18,197 MSRP: \$19,000 Incentives: \$803 Price Includes: \$1,000</p> <p>FINANCE: 0% APR Residual: \$13,000 Purchase Price: \$18,197</p>	<p>2017 Hyundai Santa Fe SE</p> <p><i>This vehicle features:</i>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p> <p>AWD, Automatic, HQ11442</p> <p>LEASE: \$189/mo. • 36-month lease • 10,000 miles per year • \$1,000 down payment</p> <p>PURCHASE: \$29,003 MSRP: \$30,000 Incentives: \$997 Price Includes: \$1,000</p> <p>FINANCE: 0% APR Applied to 24 months for qualified customers.</p>	<p>한국인 딜러</p> <p>Earl Ko <small>고을</small>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p>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60 monthly payments of \$17.48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턴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AP US History 준비 가이드 특집 (3) Period 7: 1898~1945

개정 AP 미국사의 핵심은 내용의 단순 암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굵직굵직한 큰 그림과 각 시대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주요 개념 (Key Concept)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칼럼은 통해 올해 AP 미국사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기 위한 <2017 AP US History 준비 가이드> 시리즈로 8주간 연재합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19세기의 미국은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지만, 빈부의 격차와 독과점, 부패 정치 등의 문제가 대두했던 이른바 도금시대 (Gilded Age)였다. 또한 이 시기는 도금 시대의 아이콘 중 하나인 철도 노선의 확장을 타고, 그리고 연방 정부의 몇 가지 경제 정책에 힘입어, 미국인이 극서부까지 정착하게 되었던 것도 19세기 후반부였다. 미국의 20세기는 도금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혁신주의 (Progressivism)과 서부 개척의 확장관에 해당하는 제국주의 (Imperialism)에서 시작한다. 혁신은 그만두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에서 시작한 1920년대에 등장했던 경제 및 재정 정책은 결국 대공황의 원인이 된다. 대공황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그리고 사실상 미국의 공황을 끝냈고 미국 사회의 크나큰 변화를 수반했던 2차 세계 대전 등이 Period #7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키워드 하나: 대외정책의 변화

1890년 미국의 연방 인구 센서스국은 “프런티어 라인의 종말”을 선언한다. 19세기 내내 영토 확장과 서부 개척을 거듭한 결과, 19세기 끝나가던 무렵에는 미국 영토 어느 곳에도 1제곱 마일 당 거주자가 2인 이하인, 이른바 “최전방 (Frontier Line)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물론 미국인의 서부 개척은 원주민 부족들에게 크나큰 재앙이었다.) 프런티어 라인이 사라져버린 19세기의 끝자락, 미국은 점차로 해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9세기 영토확장과 서부 개척을 견인했던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이라는 슬로건이 이제는 미국식 ‘선진 문명’을 세계 각지에 이식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는 식으로 변형되고 있었다. 게다가 2차 산업화의 결과로 미국은 서서히 농업 중심국가에서 산업 중심 국가로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이 필요했으며, 유럽 열강들은 앞다투어 해외로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 미국만 뒷짐을 지고 있을 수도 없었다.

사실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영원한 우방을 만들지 않는” 중립주의 외교를 천명하고, 이어 1823년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고립주의, 불간섭”의 외교적 원칙을 담은 먼로 독트린을 내세운 이후, 19세기 내내 미국의 대외정책은 고립주의 노선에 있었다. 즉 교역과 교류는 있어도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개입

을 하지 않는 것. 19세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개입,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한 영토 획득, 중국을 향한 개화 요구, 그리고 1차 대전 참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외정책은 고립주의 외교를 떠나 제국주의적인 이행을 겪는다.

물론 1차 대전이 종전 후 벌어진 사회의 혼란은 “우리는 유럽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했다”는 정서와 함께 미국이 다시 한번 고립주의 외교노선으로 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2차대전이 미국의 참전과 함께 연합군의 승리로 귀결하고, 이어 냉전시대 서방 민주주의 진영의 중심축이 미국이 된 이후, 미국은 과거의 고립주의 외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키워드 둘: 경제, 호황과 불황 사이

19세기 후반의 산업화가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 있었다. 1차 대전 초기 유럽의 전쟁이 미국의 금보유량을 줄이는 등, 미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던 시기, 미국 경제는 점차로 회복하여 호황을 누리게 된다. 영국과 프랑스로부터의 군수물자 주문이 급증했고, 또한 미국의 농산물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전쟁이 끝났을 때의 미국은 유럽 국

가들로부터 빛 받을 일만 남은 “채권국가”가 되었다. 게다가 1920년대의 몇 가지 신사업은 미국 경제에 호황의 빛을 던졌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사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아직 취약했고, 1920년대 세 번의 보수-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재벌, 부자 감세, 반-노동자, 고관세 등의 경제정책이 유지가 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대공황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승승장구할것만 같았던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잉여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고관세로 인해 유럽은 미국에 채무를 이행하기 힘들어지면서 미국 경제는 10년이 넘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데, 뉴딜을 통해 그 침체의 속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실제 경기 회복은 2차 대전을 통해서야 가능했다.

키워드 셋: 개혁, 혁신주의 그리고 뉴딜

20세기 초반의 미국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또 다른 키워드는 19세기의 끝자락 즈음에 시작하여 1차대전 종전과 함께 시들해진 혁신주의의 흐름이다. 혁신주의는 지식과 효율에 대한 믿음,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도금시대와 함께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 등의 표출이었다. 혁신주의의 세부 아젠다와 성과는 꼭 정리해둘 것. 마지막으로 뉴딜의 빛과 그림자 역시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꼼꼼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73 화랑세기(花郎世紀), 6세 풍월주(風月主) 세종(世宗(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세종이 화랑으로서의 활약한 그의 일대기를 짚어보기 전에 선혜황후의 폐위사건을 먼저 둘러다 보자. 선혜는 비처(소지)왕의 후이다. 화랑세기에는 선혜황후가 묘심과 사통하여 오도吾道 라는 딸까지 낳은 기록이 있고(1세 위화랑전), 탈자가 많아서 정확한 해독이 불가능 하지만 선혜황후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폐위되어 신궁神宮의 제주祭主가 되었으며 묘심은 법에 따라 주살되었다는 기록이 있다(7세 설화랑전, 8세 문노전). 한편 김춘추의 아버지는 김용춘이다. 김용춘의 어머니 지도태후(남편은 진지왕)는 기오공의 딸이다. 그런데 이 기오공 또한 선혜황후의 사자私子이다, 즉 선혜가 사통을 해서 낳은 아들이다. 비처왕의 왕비인 선혜는 이렇게 남자관계가 복잡하였다. 폐위사건을 비롯한 이러한 그의 사생활의 기록은 화랑세기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하지만 삼국사기에는 전혀 없다. 다만 삼국유사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전한다. 이른바 ‘사금갑 사건’이다. 삼국유사 기이편 제1, 사금갑조에 실려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비처왕이 즉위 10년(488년) 정월 보름에 천정天泉井으로 행차하였는데,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더니 쥐가 사람의 말로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아가 보시오”라고 했다. 왕은 기사騎士를 시켜 까마귀를 따라가게 하였다. 기사는 남쪽의 피촌避村(98)에서 돼지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만 까마귀의 행방을 놓쳐 버리고 말았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변만 맴돌고 있을 때, 옆의 연못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기사에게 글을 쓴 봉투를 주었다. 겉봉에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 열어보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기사가 이상히 여겨 그 봉투를 왕에게 바쳤더니, 왕은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며 봉투를 열어 읽어 보지도 않으려 했으나, 일관이 ‘두 사람은 보통사람이고, 한 사람은 임금을 가리키는 것이니 열어 보셔야 합니다’라고 아뢰므로 왕이 열어 보니 ‘사금갑射鞞匣, 거문고 갑을 쏘아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왕이 궁궐로 돌아가 활로 거문고 갑을 쏘자, 거문고 갑 안에 숨어있던 종과 궁주宮主(99)가 튀어나왔다. 두 사람은 거문고 갑 안에서 왕 몰래 간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은 그들을 사형에 처했고, 이후 신라에서는 해마다 정월 첫 돼지날, 첫 쥐날, 첫 말날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감히 움직이지 않으며, 특히 정월 보름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공양하며 제사를 지냈다. 노인

이 나타나 서찰을 전해준 못을 서출지書出池라 부르게 되었다.)

비처(소지)왕은 신라의 제21대왕으로 왕후는 선혜였고 아들이 없었다. 나중에 재위 22년(500년)에 날이군(현 영주)으로 순시를 나갔다가 데려온 벽화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지만 오히려 이 사건이 빌미를 제공하여 방계의 지도로갈문왕(후에 지증왕, 지도로/지대로/지철로는 지증왕의 이름이다) 계로부터 왕위에서 축출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설화는 신라의 전통적인 토속신앙과 신흥 종교인 불교와의 갈등, 그 신흥 종교의 수용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왕실과 귀족집단의 대립표현, 또는 비처왕에 반대하는 김씨 왕족의 제거 등, 당시의 종교와 정치체력의 역학구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그리고 이 사금갑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찰밥(오곡밥, 약밥)을 지어 먹는 풍습이 유래되었다. 그리고 현재 경주 남산 기슭에 위치한 ‘서출지’는 사적 제 138호로 지정되어 전한다. 연못의 둘레가 약 200m의 규모로 비교적 아담하고 조용한 연못이다.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경관은 무척 아름답다. 봄에는 벚꽃이 환상적으로 피며, 여름에는 못 전체의 연꽃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현종 5년(1664년)에 임적이란 사람이 지었다는 이요당二樂堂이라

는 정자는 지금도 사계절 절묘한 주변 경관과 함께 숨쉬고 있다(이요二樂는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智子樂水 - 어진사람은 산을 즐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즐긴다”에서 따온 말이다. 수려한 산기슭 연못가에 아담하게 지어진 정자의 뒷마루에 걸터앉아 고궁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역사기행, 이 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에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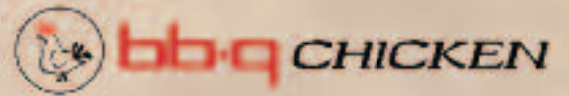
198) 삼국유사에는 양포사촌壤避寺村으로, 남산 동쪽 산기슭에 있다고 했다.

199) 이 궁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비처왕은 정비인 선혜왕후를 비롯하여 벽화, 연제, 벽아, 보혜, 준명, 흥수, 보옥, 묘양, 응용 등 많은 후궁들이 있었다. 다만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정비인 선혜부인이 라고 하였다. 즉 화랑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대목이다(화랑세기의 내용은 선혜황후는 처형되지 않고 신궁에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로 강등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TWICE GRILLED WHOLE LEGS

Always be happy with bb.q premium café menu.
We are proud to use only the best ingredients on
everything we serve.



SOFT OPEN

2017.3.23. 5PM
617.903.3359



bb.q
CHICKEN

They returned for more when they found out
the bbq chicken were actually good.

**18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가맹점 모집 :
franchise@bbdotqusa.com
617.304.700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囚 (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囚人 수인)된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For this reason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for the sake of you Gentiles—I became a servant of this gospel by the gift of God's grace given me through the working of his power. 에베소서 3:1-7.

2월 17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범수(囚)' 로 서울구치소에서 소문났다.

6일 S신문 보도에 의하면 어릴 적부터 황태자(皇太子)처럼 자란 이재용 부회장은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약 1.9평 크기의 독방에서 불교, 개신교 관련 책들을 통독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밖에서는 접하지 못했을 한 끼에 1,440원 정도의 식사를 하면서도 음식을 남김이 없고 매일 배달되는 신문을 정독" 하면서 천천히 식사를 한다.

하루 45분씩 주어지는 운동시간에 이 부회장은 좁은 부채꼴 모양의 운동공간을 쉬지 않고 달려 몸 관리에도 철저하다.

독방에 수용된 거물급 인사들의 경우 일반 재소자와 마주치지 않게 시장배정을 따로 받는다.

"뭐 주고 뽀 맛있는 이재용 부회장 마음 편해서 밥 잘 먹겠냐?" 는 한 논평은 "뭐 주고 뽀 맛있는 이재용 부회장 마음 편해서 밥 잘 먹겠냐? 살아서 평생 잊지 못할 때 린자들에게 천벌(天罰)을 받게 하기 위해 인내(忍耐)하며 지내는 것" 이라고도.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받는 자세는 박영수 특별 검사팀 안에서도 하제. "이 부회장이 상당히 점잖고 가정교육이 잘 된 사람" 이라고.

6일 정식 출간된 회고록에서 "1988년 퇴임 준비를 하던 때 보유했던 정치자금 1,600여억 원이었으며, 퇴임직후 처리되는 4월 총선 준비를 위해 후임인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550여억 원을 줬다" 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책에서 "(노 전 대통령

에게) 취임 초부터 기업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부담을 갖게 되니 (취임 후) 한동안은 (나에게서) 받은 돈으로 충당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이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매달 40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면서 박정희 정권시절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박종규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정희 정권에서) 청와대와 당이 매년 거둔 총액은 알 수 없지만 현대그룹 등 재벌로부터 5억 원 등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매달 40억씩 모았고 이와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마다 40억~50억 원의 정치자금을 거뒀을 것이라는 게 (박종철 씨의) 이야기였다" 고.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시절 제임시 기업들로부터 2,259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내가 받은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 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를 겨냥했다" 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시간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지난 4월 4일 조서열람시간을 포함해 약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데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 이뤄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였다.

이날 조사에는 4일처럼 한웅재(47)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이 진행했다.

유영하(55)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더 조사한 뒤 오는 17일을 전후해서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囚수 : 죄인(罪人) 갇힌 사람 수.

사람이 법률을 범해서 형무소에 갇혔다는 뜻.

성경 전체에서 죄인으로 형무소에 갇힌 기사는 구약 이사야 42장 7절 "네 (여호와께서 부른 사람)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囚人)를 옥에서 끌어내며... (To Free Captives from Prison)" 와 신약에서 이 칼럼 죄에 인용된 에베소서 3장 1절, 두 곳뿐.

인자(人子)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天國)를 증거하시고 우리 삶이 영생(永生)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지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땅에 오셔서 까닭 없이 사형(死刑)선고를 받으시고 "사랑을 증거" 하신 것.

이 예수님의 사랑은 쉽게 한 글자 王(왕)으로 증거하신 것.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예수님께)가 왕(王)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王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낳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眞理)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 "You are a king, then!" said Pilate. Jesus answered, "You say that I am a king. In fact, the reason I was born

and came into the world is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listens to me." - 요한복음 18:37.

예수님의 증언 중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증거가 "예수님 자신이 王" 이라는 자기 증언이다.

또은 임금인데 세상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뜻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왕" 으로 자칭하셔서 증거했다.

또은 "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一) 아버지 다음이며 그 그 사이에 十은 하나님 사랑(一)과 이웃사랑 사랑(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는 글자가 王, 곧 '사랑의 임금' 이란 뜻. 까닭에 예수님은 十형벌을 '사랑을 행(行)하는 증표로 보여주신 것.

그리스도의 교회마다 신분 표시가 十로 된 이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 요한복음 3:16.

그러므로 죄는 사람을 가두는 형무소가 아니고 영생(永生)을 주는 "하늘나라 식구(食口)" 를 그리는 또 다른 인생을 그릴 수도 있다.

이 죄를 가르치는 대통령을 거친 박근혜 씨(朴槿惠)는 "무궁화의 은혜 : 무궁화(槿) + 은혜(惠)", 다시 풀면 끝이 없는 '영생의 은혜' 를 성경의 바울(Paul)사도 같이 즐기시기를 기도(祈禱)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박지만 동생을 선두(先頭)로.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력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리즌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di, Toyota)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Calvin's auto body 운영
 26년 Auto body work!!

HISTORY MAKERS

2017 선교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 선교캠프

All Nations • All Generations Camp

CHICAGO 7.4^화 - 7.7^금

Billy Graham Center / Wheaton College

501 College Ave, Wheaton, IL 60187

*This is not a function of Wheaton College

참가등록 www.intercp.net 참가문의 missioncamp2017@intercp.org

모든 세대별 캠프가 같은 일정과 장소에서 열립니다. 모든 가족이 다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한영연합
선교캠프

HISTORY
MAKERS

청소년
선교캠프

3G
GENERATION

어린이
선교캠프

KINGDOM
-KIDS

후원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OF WORLD

KIMNET



CALVARY TEMPLE
INTERNATIONAL



주관 인터콧 10/40 Window Mission
www.intercp.net

인터콧은 미전도종족 전방개척선교를 수행하는 **미전도** 전문인 선교단체입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80) 부자가 아닌 이유

2009년부터 정확히 8년이 지난 2017년 3월 8일까지 주식시장은 250% 상승했습니다. \$100,000 투자가 \$350,000으로 세 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 주식 종목, 투자 시기 등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미국 500대 기업에 꾸준히 투자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투자할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 너무 많은 빚(Debt)

최근 연방정부 은행 발표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소지한 일반인 중에서 65%가 카드빚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빚은 매달 전액을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이자율은 평균 15%로 매우 높습니다. 투자로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카드빚은 매달 전액을 갚아야 하며, 갚을 수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비상금 마련한 게 없음

2016 연 방 정 부 은 행 보 고 (<https://www.federalreserve.gov/2015-report-economic-well-being-us-households-201605.pdf>)에 의하면 미국인 절반(46%)이 비상금 \$400마련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식투자를 결정하면 최소 5년 이내에 필요하지 않은 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2~3년 동안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상금은 보통 3~6개월 생활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분을 불안간고쳐야만 하고, 교통사고, 혹은 직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금이 필요할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손실된 돈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은퇴 투자를 늦게 시작

은퇴는 몇십 년 후에 일이라 투자를 자꾸 미룹니다. 돈을 당장 여기저기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돈이 불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5세에 은퇴자

금 \$100만 불이 필요하다면 이자를 8% 받는다고 가정하고 매달 필요한 투자 액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나이가 25세라면 \$286, 35세라면 \$671, 45세라면 \$1,698, 55세라면 \$5,466을 투자해야 합니다.

수입의 1% 투자 시작으로 매년 1%씩 더해서 15% 정도까지 늘린 다음 계속해서 투자해야 놀라운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투자 무시

매년 IRA에 부부가 각각 \$5,500, 나이가 50 이상이면 \$1,000을 추가해서 \$6,500까지 세금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이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유예된다는 뜻입니다. 한 직장인의 연봉이 \$10만일 때 은퇴플랜 401(k)에 \$10,000을 투자하면 그해 세금보고는 \$90,000에 대해서 합니다.

IRA, 401(k), 등 은퇴플랜에는 투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혜택을 무한

정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 투자자는 정부가 허락하는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 의료저축계좌(HAS, Health Savings Account)

의료저축플랜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이 High-Deductible Health Plan (HDHP)이어야 합니다. 2017년 부부가 \$6,750까지 401(k)처럼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돈이 불어나서 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치아관리, 안경,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좋은 투자종목이나 투자 시점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라도 가능한 한 일찍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1930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10%입니다. 같은 비율로 \$5,500을 30년 투자하면 거의 \$100만으로 불어납니다. 은근과 끈기로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와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2016년 세금신고 안내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
- 연구원/방문교수 등은 2년간 세금 안 낸다고?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온 사람은 2년동안 미국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번주는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에 대한 2년간 세금면제 이야기는 한미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는 ①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②면제되는 소득 그리고 ③면제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누가 세금을 면제 받나?

연구원 등이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규정을 풀어 보면,

첫째: 한국의 거주자가

둘째: 미국 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해 초청되고

셋째: 초청목적이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또는 강의와 연구 둘 다)이어야 하고

넷째: 초청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섯째: 미국에 온 주된 목적이 워킹샵 요건인 강의나 연구목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은 위에서 열거한 모든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가끔 워킹샵(한국의 거주자나)와 넷째(초청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연구원등이 있습니다.

초청당시 한국거주자여야함

첫째 요건은 초청 당시 한국의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거주자'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한국세법과 미국세법에서 서로 자국의 거주자임을 주장하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판단함). 따라서 초청 당시 H비자나 F비자 등의 소지자로서 이미 한미조세조약 등에서 미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미조세조약이란 한국 거주자의 미국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반대로 미국 거주자의 한국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어서, 미국 거주자의 미국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이내여야함
넷째 요건은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연구원 등은 아예 이 규정상의 면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처음부터 3년의 초청기간으로 입국한 연구원의 경우, 처음 2년의 소득은 면제해주고 그 이후 1년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원은 당초부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3년 전체 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2. 면제되는 소득은?

면제소득은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이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한합니다. 즉 연구원이나 방문교수의 본래의 초청 취지에 맞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만 면제해 줍니다. (단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면제 안 됨).

따라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의 연구나 강의에 대한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인적용역 중 면제 대상이 아닌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방법은 연구원이나 방문교수등이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Resident Alien/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면제기간은?

면제기간은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입니다. 즉 2016년 10월 1일에 미국에 입국한 연구원의 경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의 소득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기간은 한국거주자였던 사람이 면제기간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거나 이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6년 10월 1일에 J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온 연구원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이나 2018년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되는데, 이렇게 세법상 거주자가 된 2018년도에도 2018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백성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너희들이 와인 맛을 알아

비즈니스의 90%는 사람의 삶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한다. 비즈니스는 수학문제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문제를 풀려고 파고 들면 그 각박함에 상대가 도망 가고 만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성취하려면 90%의 삶의 공유와 10%의 비즈니스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삶의 공유에 관해서는 그 어떤 트레이닝도 개발 프로그램도 없다. 서점의 모든 비즈니스 성공 트레이닝 서적들은 10%에 해당하는 문제해결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아마 이런 이유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이 그 많은 서적들의 독자들 보다 적은 것 같다.

삶의 공유는 동질감의 구축이다. '나도 당신과 같은 관심, 취미, 배경등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성공한 세일즈 매니저들이 고객의 사무실을 방문하면 절대로 비즈니스 안전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우선 사무실을 살펴 보고 무엇이 진열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골프채, 골프공, 골프대회 트로피들이 있으면 '이 고객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공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헨디가 얼마나", "혹시 A골프장 가

보았느냐", "요즘 아무개 선수가 너무 슬럼프 아니냐" 등 고객이 경계를 풀고 다가올 수 있게 대화를 풀어간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것에 대해서 말하고 듣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부드러워진 분위기에 비즈니스의 문제해결을 제시하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대화가 끝나면 다시 곧 골프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삶의 공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어야 한다. 가식으로 상대에게 삶의 공유에 다가간다면 곧 그 허상이 들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얻게된다. 이는 그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그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한번 유혹해 볼까'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상대가 그 의도에 더 더욱 실망을 느껴 혐오로 발전할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북동부 최대 제조 공장 생산담당 이사 폴이 당시 그의회사 마케팅 책임자 잔과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잔은 고객 폴이 자신의 집에서 저녁 초대를 했다는 사실에 흥분해 있었다. 미국 비즈니스에서는 개인의 집에 저녁을 초대하는

일은 아주 드문일이고, 마음을 열고 개인적으로도 친해지고 싶다는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잔은 너무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로 폴의 초대에 응해서 결국 그의 회사는 다시 그 업체에 발을 들여 놓을수 없게 되었다. 폴은 와인 애호가여서, 잔이 오자마자 자신의 지하 와인셀러를 보여주고 몇 병의 자신의 소장 와인으로 저녁을 시작했다. 잔은 와인에 대해서 모르지만, 혹시라도 비즈니스에 해가 되지 않으려고 계속 마셨다. 분위기가 오르자 입가심으로 스카치 위스키로 마무리를 했는데, 잔은 고객 폴에게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너무 취한 잔은 화장실을 간다고 하는것이 그만 폴의 차 앞에서 실례를 한것이다. 인사 불성인 잔을 끌고 같이 갔던 일행은 고개를 들수없는 창피함으로 그날을 마무리했다.

얼마 후 폴은 우리의 경쟁업체 증역들을 초대했는데, 그 업체 증역들은 이미 폴이 와인 애호가임을 파악하고 회사내 직원중에서 '와인 애호가'를 차출해서 같이 갔다고 한다. 물론 그 생산업체의 모든 화학약품 납품은 경쟁업체로 넘어갔다.

잔의 에피소드를 듣고 나는 그날부터 와

인을 공부했다. 혹시라도 나에게 '폴의 초대' 같은 기회가 오면 '삶의 공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는 나 스스로도 와인에는 조금 즐길 줄 아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비즈니스는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비즈니스는 성공할 것이다. 더불어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H-1B가 다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올해도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H-1B조기 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뒤늦게 H-1B 청원을 결정하여 미처 H-1B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접수는 하셨지만 추천에서 뽑히지 못했다고 통보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올해 H-1B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들 합니다. 무조건 낙담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차선책들은 없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남아 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H-1B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에는 다양한 비자들이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선책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우선, 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이고 해당 직업군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OPT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존 OPT 12개월에 17개월 추가 OPT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작년 5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연장시, 1년 이상 추가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해 4월에 H-1B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된다면 현재 OPT가 끝나는 날짜를 고려하여 연

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군을 고려하여 다른 비자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등에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였고, 해당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특수재능소유자비자" 라고 불리는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케이스들은 건축전문자들 케이스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면 공학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건물을 디자인 하는 업무는 예술성과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건축 디자이너는 O비자 직종이며 건축을 전공하셨고 H-1B의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O비자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해보고자 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 라고 불리는 E-2 Investor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는 이민과 달리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적은 액수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이 함

께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E-2배우자 또한 미국 취업이 가능합니다.

H-1B를 신청했던 회사가 외국 투자회사라면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계 대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E-2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직원에게 E-2 Employee로 비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국계 대기업에서 H-1B를 들어갔는데 추천에서 떨어졌다면 회사가 E-2회사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합법 체류 기간 내 신분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H-3비자도 대안책으로 많이 언급되는 비자입니다. H-3비자는 "취업연수생비자" 라고 불리며 고용주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 연수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상업, 방송, 금융재정, 정부관련, 교통, 농업 등의 분야 연수에 많이 이용됩니다. 최대 2년간 유효한 이 H-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수가 외국에서 불가능하며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한국에서는 배우기 쉽지 않은 위스키 제조기술, 요리 기술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면 H-3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H-1B를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에는 H-1B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단, 많은 분들이 F-1에서 H-1B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F-1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영주권 카테고리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비이민비자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는 작년 추천에서 떨어진 다수의 고객들이 고용주와 상의하여 영주권 절차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케이스가 마무리 단계이거나 마무리 되어 모두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H-1B 대안, 송동호 종합로펌과 상의하세요!

H-1B가 다가가 아니다!

O 비자

E 비자

P 비자

영주권

H-3

NIW

매력녀, 그래픽 디자이너 윤아
차도남, 공인회계사 공유
핫한 인스타그램 스타, 패션 디자이너 소미
훈남, 건축 디자이너 현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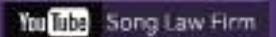
모두 H-1B 추첨 탈락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H-1B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개인 우편서비스(프랜차이즈 아님) 연매상 \$550,000
100% 소유자 부재 중 경영, 높은 순수익

보스톤 남쪽 풀러커 연매상 \$1M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 혼자 경영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8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08,000 20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섬머캠프 활동

SSAT English + Literature Class

10주 일정으로 6-8학년을 위한 SSAT & 문학수업을 개강합니다.
2시간 30분 수업으로 주제별 문학 접근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어휘 능력을 키워드립니다.
한국식과 미국식을 접목하여 엄격하게 지도, 관리 합니다.

- 매주 토요일: 10:00am~12:30pm
- 380 Great Rd. #220, Acton, MA 01720
- 6~8 학년

4월 1일 개강

	주제	SSAT 단어
1주	Growing and Changing	1-100
2주	Growing and Changing	101-200
3주	Reaching Out	201-300
4주	Reaching Out	301-400
5주	Proving Yourself	401-500
6주	Proving Yourself	501-600
7주	Seeing it through	601-700
8주	Seeing it through	701-800
9주	Mysterious Way	801-900
10주	Mysterious Way	901-100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